

## 티무르조의 화폐 제도 재고(再考)

이주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박사후연구원

1370년에 중앙아시아의 도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건국된 투르크계 유목국가인 티무르조는 페르시아-이슬람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슬람권에는 전통적으로 금화인 디나르, 은화인 디르함, 동화인 풀루스가 사용되었는데 그 무게, 순도, 비가(比價) 등이 우마이야조 시기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가 되면 이슬람권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단위의 화폐, 즉 기본 디나르, 디르함과 정수배를 이루는 소액권과 다액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국가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일한국의 가잔 칸은 디나르라는 이름을 지닌 대형 은화를 고안하여 소형 은화인 디르함과 정수배를 이루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티무르조는 이러한 개혁의 취지를 이어받아 중앙아시아의 토착 디르함과 정수배를 이루며, 외형상으로는 기존의 이슬람권 화폐와 달리 델리술탄국의 화폐와 유사한 새로운 화폐를 탄생시켰는데, 이를 탕가라고 한다.

주제어 디나르, 디르함, 풀루스, 탕가, 화폐제도

### I. 머리말

14~15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였던 티무르조의 역사서에는 주로 정치사, 전쟁사 관련 내용이 많고 사회·경제사 관련 기록은 적은 편이지만, 간혹 특정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사 관련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는 당시의 물가에 관한 정보가 있다.

그분께서는 주마다 알 아왈 월 4일에 헤라트에 도착하였다. [중략] 그 날에 후라산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나타난 적이 없었다. 특히 헤라트에서는, 기준 무게(Wazn-i Shari)로 1만(Mann)의 밀가루가 250미스칼이었는데, 2미스칼의 순은(Tamām 'ayār)인 3디나르-케베키(Dinār-i Kibakī)에 달하였다. 샤루흐(Shāhrūh)는 명하기를 “창고를 열어 1만의 곡식을 1디나르-케베키의 가격으

로 사람들에게 주어라.”라고 하였다(Samarqandi, 1996~1997: 60).

위의 기사는 티무르조의 물가와 관련하여 종종 인용되는, 사서 『양성의 상승과 두 바다의 만남(*Matla' Sa'idayn wa Majma' Bahrayn*)』의 1406년(이슬람력 809년) 기록이다. 이처럼 국내의 상황이 좋지 않아 물가가 폭등하였다는 기록은 티무르조의 사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러한 기록은 당대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장치이거나, 군주의 정의로운 조치를 통해 물가가 안정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서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량적으로 읽어 내기 위해서는, 당대의 도량형과 화폐단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페르시아 문화권 고유의 무게 단위인 ‘만(Mann)’과 아랍-이슬람의 무게 단위인 미스칼(Mithqāl), 거기에 일한국 가잔 칸(*Ghāzān Khān*)의 개혁을 통해 생겨난 ‘표준-만(Mann-i Shari)’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단위 하나하나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sup>1</sup>

또한 위 기사에 나타난 화폐단위는 티무르조의 이전 왕조, 차가타이한국의 케베크 칸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은화 ‘디나르-케베키’인데, 그 무게가 ‘3디나르-케베키 = 순은 2미스칼’이라고 되어 있어 ‘디나르-케베키’라는 은화의 순도와 무게를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두 가지 맹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티무르조의 여타 기록에는 디나르-케베키의 무게가 위의 기록과는 전

<sup>1</sup> 미스칼은 본래 금화의 무게 단위로, 약 4g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혹은 동시대에도 지역에 따라 4.233g에서 4.78g까지 다양한 무게를 지닌다. 바빌로니아에서 기원한 무게 단위인 ‘만’은 이슬람권에서 대체로 라틀(Ratl)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유독 페르시아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대나 지역에 따라 무게가 1kg 미만부터 6kg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표준 만’은 일한국의 가잔 칸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1라틀의 무게와 같은 260디르함, 즉 833g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인용한 사료에 따르면 15세기 초반 헤라트에서는 1만의 밀가루의 무게가 250미스칼이었고, 티무르조에서 1미스칼은 약 4.8g에 해당하므로, 계산해 보면 1만은 약 1.2kg에 달한다. 전근대 이슬람권의 도량형에 관해 연구한 힌츠(Walther Hinz)에 따르면 이란에서 만(Mann)의 무게는 처음에는 ‘표준 만’과 같았으나, 14세기 중반이 되면 약 3kg이 되는 ‘大 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타브리즈의 만’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사파비조 이후이며, 본문의 사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티무르조에서는 만의 무게가 증가 추세에 있었을 뿐 3kg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레브스톡(Ulrich Rebstock)은 ‘중간 만’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1.92kg가량 되며, 16세기 사파비조 시기에는 5.7~6kg에 달하는 ‘슈퍼 만’도 등장한다고 한다(Hinz, 2003: 25-7; Rebstock, 2008: 2261).

혀 다른 값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티무르조의 화폐에 관한 여러 카탈로그를 검토해 보면, 인도에서 기원한 ‘탕가(Tanka)’라는 화폐가 대부분이며 ‘디나르-케베키’라는 이름을 지닌 화폐는 티무르조 초기의 혼용시기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사료의 기록처럼 티무르의 아들이자 3대 군주인 샤루흐 시기에 디나르-케베키가 티무르조에서 통용되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이슬람권의 금은화를 다량 보유한 박물관 소속 연구자나 화폐 연구에 필요한 특수 기술을 지닌 전문가도 아니며 이슬람권의 사회경제사 연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티무르조 사서에 간혹 등장하는 화폐 관련 기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화폐 관련 기존 연구를 찾아보다 보니 기왕의 연구 성과가 체계적이지 않고, 때로는 서로 모순된 내용이 비판과 분석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티무르조의 화폐에 관해 새로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티무르조 130여 년 동안 화폐 제도가 어떻게 유지·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하는 글이 될 것이다.

## II. 페르시아-이슬람권 화폐의 전사(前史)

페르시아-이슬람권에서 몽골의 침입 직전인 12세기까지 수백 년간 사용되었던 화폐는 금화인 디나르(Dinār)와 은화인 디르함(Dirham)이다. 디나르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우스(Denarius)’에서 유래한 것이며, 디르함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의 ‘드라흐마(Drachme)’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두 화폐 모두 페르시아 문화권이 이슬람화되기 전인 사산조 시기에도 존재하였는데, 7세기 말(이슬람력 77년/서력 696~697년), 우마이야조 칼리프인 압둘 말릭(ʿAbd al-Malik)은 화폐 개혁을 통해 금화 디나르와 은화 디르함, 그리고 비잔틴에서 유래한 구리 화폐인 풀루스(Fulūs)까지 세 종류의 화폐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는 이슬람 교리에서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미지 없이, 오로지 서체로만 장식된 화폐를 고안해 냈는데 그 내용은 주조 장소와 주조 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교 명문들,

칼리마(Kalima)<sup>2</sup> 및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여러 쿠란의 시구들이었다.

이 디나르와 디르함의 무게는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처음 고안되었을 때의 기본 무게는 디나르는 4.25g, 디르함은 그것의 0.7배인 2.975g였고,<sup>3</sup> 순도는 대체적으로 90% 이상이였다.<sup>4</sup> 한편 칼리프가 고안해 낸 중앙의 화폐 외에도 지방마다 다른 형태의 화폐가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면 구리의 함량이 과도하게 많아 결국 검은색이 되었던 마와라안나흐르의 검은 디르함(Bukhar-khuda)<sup>5</sup>이나 (Fedorov, 2010: 27-52; Treadwell, 2007) 시아파, 유대교 및 크리스트교의 신앙 고백 문구를 담은 화폐,<sup>6</sup> 그리고 사산조의 멸망 후에도 여전히 옛 사산조 화폐의 이미지와 명문을 담은 타바리스탄(Tabaristān, 현 이란의 마잔다란과 길란)의 에스파흐보드(Espahbad) 등이다(Album, 1992). 이와 같이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화폐는 주로 특정 권역에서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화폐이므로, 금화인 디나르나 은화인 디르함처럼 대외 무역이나 조세 등 공식적이고 규모가 큰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폐와는 달리 구리 화폐이거나, 금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813년에 압바스칼리프조의 칼리프 알 마문(al-Mā'mūn)은 화폐 주조에 관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이 기준은 근 600년 동안 지켜졌다. 예를 들면 쿠

<sup>2</sup> 칼리마는 인간의 종교적 믿음에 관한 6가지 중요한 문구를 의미하는데, ㉠ Tayyibah(순결), ㉡ Shahada(증거), ㉢ Tamajjid(영광), ㉣ Tawhid(유일성), ㉤ Istighfar(인내), ㉥ Radd Kufr(불신앙에 대한 거부) 등 6개 조항과 관련된 하디스의 문구를 일컫는다.

<sup>3</sup> 디나르와 디르함의 무게 비율이 10 : 7이어야 하는 것은 2대 정통칼리프 우마르가 세운 규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압둘 말릭이 이 비율대로 처음 주조하였다(Yusuf et al., 2002: 73).

<sup>4</sup> 다만 시대에 따른 화폐 무게의 변화가 과연 화폐 주조 시 무게의 오차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인 무게의 기준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량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가 많다. 특히 후술할 몽골제국이나 티무르조의 화폐 무게 감소 현상 및 그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은 압바스칼리프조 시대의 화폐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Kolbas, 2005: 59).

<sup>5</sup> 이 검은 디르함은 역사서에도 등장하는데, 가즈나조의 사서인 『타리크-이 베야기』(Tārīkh-i Beyhaqī)에서는 ‘검은 디르함(Dirham-i Siyah)’을 바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에 관해 역자인 미노르스키(Minorsky)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사실이 디르함은 당시에 마와라안나흐르와 후라산 등지에서 통용되던, 구리가 많이 섞여 있어 값이치가 낮았던 디르함인 셈이다.

<sup>6</sup> 일한군 아르군 칸의 화폐나 스페인의 알폰소 7세의 동전에는 ‘Bism al-Ab wa al-Ibn wa al-Rūh al-Qudūs(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Cordington, 1904: 20).

란의 룬 장(Sūra al-Rūm) 4~5절에 있는 문구를 새기는 것, 주조한 장소를 새기는 것,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이 디나르(혹은 디르함)는 ○○○년에 새겨졌다’는 문구를 동전의 둘레에 원 모양으로 새기는 것 등이다. 더 나아가 그의 후계자인 알무스타심(al-Mu‘staṣim)은 자신의 이름을 동전에 새기기 시작하였고, 후계자가 있을 시에는 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지방 통치자의 경우에는 칼리프의 이름 아래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었다. 여기에서 후대 사서에 누누이 등장하는 ‘복속의 증거로 행하는 후트바(Khuṭba)와 세케(Sika)’<sup>7</sup>라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렇게 기준이 갖춰진 9세기 이후의 이슬람 동전을 조사해 놓은 카탈로그를 보면,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갖춘 여러 시대의 금화-디나르와 은화-디르함이 수없이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디나르와 디르함의 병용이라는 원칙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대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시대에는 금화나 은화 중에 하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본래의 형식과 규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특히 은화의 경우, 외부로의 유출 및 은광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은 부족 현상 때문에 때때로 은화가 주조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한편 금화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및 순도에 관한 기준이 점차 흔들렸으며, 화폐의 순도나 무게에 따라 금화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와 달라져 마치 ‘금괴’처럼 취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금화 1디나르의 무게인 1미스칼의 실 중량도 지역마다, 혹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다. 즉 디나르나 디르함의 무게, 순도, 재질에 관한 기준 및 쿠란에서 규정한 금은비가(金銀比價)조차도 이상적인 규정일 뿐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다.<sup>8</sup>

그런데 몽골제국 시기가 되면, 이슬람의 전통적인 화폐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다. 우선 몽골제국 초기의 화폐에 관한 기록을 보면, ‘발리시(Bālīsh)’라

<sup>7</sup> 이슬람권의 여러 시대 역사서를 보면, 정복자가 피정복지역의 군주에게 ‘금요 예배 때에 군주의 이름을 호명할 때 정복자의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는 관습과, ‘금은화(세케)에 정복자의 이름을 상단에 기록하는’ 관습을 복속의 징표로 강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sup>8</sup> 몽골제국 서부에서 가잔의 개혁 이전까지 주조된 화폐에 관해 연구한 콜바스(Judith Kolbas)에 의하면, 13세기 후라산과 룬 술탄국의 미스칼 무게는 4.125g인 반면, 이라키 아잠은 4.24g, 마와라나흐르나 킵차크한국은 4.48g, 조지아는 4.30g이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화폐 무게가 가잔 칸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4.24g으로 통일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본래의 미스칼 기준도 없어지지 않았다.

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며, 디나르나 디르함에 관한 기록은 감소하였다. 이 발리시는 금은화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종의 금은괴(金銀塊)로, 주베이니(Aṭā Malik Juvaynī)의 기록에 의하면 금 발리시의 무게는 500미스칼이며, 은 발리시의 경우 그 값어치가 순도 4당(Dāng, 2/3)<sup>9</sup>인 금화(Dinār-i Ruknī) 75디나르에 해당한다(Juvaynī, 2003~2004: 16).<sup>10</sup> 이 발리시에 관한 기록은 주베이니의 『세계정복자사(Tarikh-i Jabān-gusbā)』, 라시드 앳 딘(Rashīd al-Dīn)의 『집사(Jāmi' al-Tawārikh)』에 수십 차례 등장하는데, 그 사용처는 대외교역이나 조세, 혹은 칸의 사여 등 거래 규모가 커서 본래 금화가 사용되던 분야였다. 이 ‘발리시’는 몽골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원(元)에서는 정(錠)과 같은 단위였으며 50냥(兩)의 가치를 지녔다(前田直典, 1973: 19).

물론 몽골 제국의 이슬람권에서는 대형 거래 혹은 조세 등을 위해 사용하였던 발리시 외에, 전통 화폐인 디나르와 디르함도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금·은화 무게의 비율에 관한 이상적인 규정조차 깨어지게 된다. 본래 은화인 디르함은 디나르의 7/10만큼의 무게여야 하지만, 이 복잡한 정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화되어, 이슬람권의 동부에서는 3/4(18Qīrāt),<sup>11</sup> 서부에서는 2/3(16Qīrāt)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몽골제국 시기가 되면 금화의 무게는 미스칼 무게와 관계없이 주조되었고, 디르함의 무게는 통상적으로 미스칼 무게의 3/4, 혹은 2/3의 비율이었던 것이 점점 감소하여, 가잔 칸의 개혁 직전에는 미스칼 무게의 반(1/2)이 되었다. 그런데 가잔 칸의 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감소 과정은 계속되어, 아부사이드(Abū Sa'īd) 칸의 사망

<sup>9</sup> 이 당(Dāng)이라는 개념은 1미스칼을 1/6으로 나눈 하나를 의미하며, 실물 화폐의 단위로도 이용된다. 특히 몽골제국 이후로 1디나르가 6디르함이 되었기 때문에, 1디르함의 값어치는 디나르의 1당이라 할 수 있다.

<sup>10</sup> 당시의 1미스칼을 대략 4g라 규정할 때, 발리시의 무게는 2,000g 정도라 볼 수 있다. 이 무게는 금·은 발리시 모두에 해당하는데, 금 발리시의 경우 1디나르가 1미스칼이라는 기준에 따라 순금 500디나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은의 경우 순금화가 아닌 2/3 순도의 금화로 그 금액을 측정하였는데, 순도가 2/3인 금화로 75디나르라면 순금화로는 50디나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금은비가 10 : 1이라는 쿠란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주베이니가 이용한 금은비는 이렇듯 10 : 1이었다.

<sup>11</sup> Qīrāt이라는 단위는 현재 보석의 무게 단위인 캐럿(Carat)의 원형이나, 본래에는 금의 무게 단위인 미스칼의 1/20(이라크 지역), 1/24(이라크 외)에 해당하는 무게다(Hinz, 2003: 39).

직후에는 미스칼 무게의 1/3까지 감소하였다(Kolbas, 2005).

이와 같이 일한국 전 시기에 걸친 은화 무게 감소 현상을 보면, 화폐제도의 병폐를 단기적으로 고치기 위해 산발적으로 디르함 무게를 축소하는 조치를 수차례 취하는 도중에 가잔 칸의 화폐 개혁이 발생하였으나, 가잔 칸 이후에도 무게 축소 현상은 줄곧 이어졌으므로 그의 화폐 개혁의 의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든다.<sup>12</sup> 그러나 가잔의 개혁을 분석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 보면, 그의 화폐 개혁으로 인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중에서 티무르조의 화폐 체계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은화의 가치를 무게로 계산하기 위한 ‘계산 디나르(Current/Accounting Dinar, Dīnār-i Rā’ij)’라는 새로운 거대 은화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 계산 디나르는 3미스칼(약 12.96g)의 무게였고, 당시에 디르함 은화의 무게가 12Qīrāt, 즉 1/2미스칼이었으므로 은화 디나르와 디르함의 무게 비율은 6 : 1이 되었다. 이는 1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소액권이 난무하게 되면서 발생한 혼란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집사·가잔 칸 기』의 화폐개혁에 관한 20번째 장을 보면, “그가 말하였다, ‘은화를 무게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3미스칼을 1‘계산 디나르’로 하라.’ 그리하여 누구도 은화를 자를

<sup>12</sup> 페데로브-다비도브(G. A. Federov-Davidov), 셰이프앗디니(A. M. Seyfeddini), 스미스(John Smith Jr.), 블레이어(Sheila S. Blair) 등의 학자들은 가잔 칸 이후 4차례에 걸친 은화 무게 감소 현상의 규칙 및 그 원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중 스미스의 연구를 보면, 이 시기에 등장한 계산 디나르의 무게를 기준으로 삼아 가잔 칸~아부사이드 칸 시기에 은화 무게가 규칙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즉, 디르함은 가잔 칸이 정하였듯이 본래 디나르의 1/6 무게였으나, 4차례에 걸친 화폐 무게의 축소 과정에서 새 디르함이 원래 은화 디나르의 1/6.5, 1/7, 1/8, 1/9의 비율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화폐 무게 축소의 원인이, 비교적 섬세하게 주조되어 마모가 심한 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모의 주기에 맞추어 그 크기와 유사한 새로운 화폐를 주조함으로써 화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경제적인 계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Smith, 1969: 16-41). 그러나 블레이어는 이 시기 은화 무게의 감소는 계산 디나르와는 상관없이, 1미스칼을 24등분한 24Qīrāt 중에서 2Qīrāt(≈0.36g)씩 감소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화폐의 크기 축소의 원인에 대해, 화폐의 무게를 줄여 적은 양으로 많은 은화를 주조하고, 이것으로 군사원정 및 여러 재정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Blair, 1983: 295-317). 또 다른 의견으로는, 13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은광이 폐쇄되고 은의 생산이 극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Tom, 2012: 95)

<sup>13</sup> 가잔 칸의 화폐 개혁은 그의 도량형 개혁과 마찬가지로 타브리즈에서 통용되던 기준을 일한국 전 영역에 확대·적용하였다는 점과, 금화와 은화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던 미스칼의 무게를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별다른 무게 기준이 없이 금괴처럼 사용되었던 금화 디나르의 무게를 100미스칼로 고정하였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다.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Kolbas, 2005: 186; Rashid al-Din 1957: 494), 이는 기존에는 흔치 않았던 ‘은화를 자른’ 소액권이 증가하면서 무게와 순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화폐들이 유통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여러 단계의 금액권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화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 ‘계산 디나르’가 티무르조의 화폐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티무르조에서 이 ‘계산(Rāij)’이라는 단어를 ‘디나르-케베키(Dīnār-i Kibaki)’의 수식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티무르조가 위치한 마와라안나흐르의 이전(以前) 국가인 차가타이한국의 케벡 칸(Kebek Khān)이 1320년대 후반에 화폐 개혁의 일환으로 고안하였던 디나르-케베키는, 일한국의 3미스칼보다 작은, 대략 2미스칼(≒8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Album, 2011: 215). 이처럼 무게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디나르-케베키 역시 당지(當地) 소형 은화와 1 : 6의 무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현존하는 케벡 칸 및 그 이후의 차가타이한국 은화를 보면, 1디나르짜리와 더불어 1/6디나르(≒1.3g, 즉 1디르함)짜리 은화가 발견된다(Album, 2011: 215-216). 이로써 케벡 칸 역시 디나르-케베키를 고안할 때, 디르함 은화와 1 : 6 비율을 지닌 대형 은화(계산 디나르)라는 개념을 가진 칸의 개혁에서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한국에서는 이 6디르함(디나르)과 1디르함, 그리고 그 2배이자 미스칼의 무게에 해당하는 2디르함까지 세 종류의 화폐가 발견되는 반면, 케벡 칸의 화폐는 1디나르(6디르함)와 1/6디나르(1디르함) 두 종류의 화폐가 발견되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sup>14</sup>

이 케벡 칸의 디나르-케베키와 같은 무게를 지닌 은화는 1350년대에 차가타이한국의 세력이 후퇴하면서 꼭두각시 칸으로 전락하였던 부얀 쿨리 칸의 은화와 1360년대 차가타이한국의 간접영향권에 있었던 바닥산의 샤가 주조한 은화 및 1380년대 후반 티무르조에서 세운 몽골제국의 후예 소유르가트미시 칸의 은

<sup>14</sup> 화폐 카탈로그상으로 차가타이한국의 화폐는 그리 많지 않아 개혁 이전 차가타이한국의 화폐가 어떤 형태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다비도비치나 스테판 앨범에 따르면 순도 80% 가량인 2g짜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2g의 무게를 가진 2개의 화폐가 하나는 차가다이 칸, 다른 하나는 케벡 칸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케벡 칸의 개혁 이전 차가타이한국의 은화는 거의 무게가 변함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화까지, 차가타이한국의 강역과 그 주변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그러므로 14세기 중·후반부에 디나르-케베키의 무게는 일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았던 셈이다. 사실 은화 무게의 축소는 일한국 이전에는 드물었던 독특한 현상이었으나, 일한국과 일한국 이후 이란 지역에서의 후속 국가들, 그리고 일한국의 강역을 대부분 장악하였던 티무르조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III. 티무르조의 은화 제도

#### 1. 화폐의 이중구조, 지불과 계산 화폐

티무르조의 페르시아어 사서에서 화폐와 관련된 기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우선 군주가 아미르나 왕족에게 공적을 치하하거나 임무를 맡기는 경우, 혹은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일정 금액을 사여하는 경우,<sup>15</sup> 반대로 전쟁 배당금이나 조세, 혹은 반란이나 독직을 행한 관료가 내는 벌금 등 아랫사람이 군주에게 소정의 금액을 바치는 경우, 국가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변동되었을 때의 물가 관련 기록 등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와크프 수입, 서기들의 수입료, 침묵을 지키는 대가(*Ḥaqq al-Sukūṭ*), 뇌물, 델리술탄국 화폐와의 환율 등의 기사에서도 화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사에서 금액 단위는 디나르-케베키이다. 그에 반해 여러 화폐 카탈로그에서 보이는, 티무르조 시기에 주조된 현존 화폐는 대체로 ‘탕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서의 기록은 극히 드문 편이다. 탕가에 관한 기록은 주로 15세기 후반의 사료인 『양성의 상승과 두 바다의 만남』, 16세기 초의 사료인 『전기들의 벗(*Ḥabīb al-Siyar*)』 등에 조금씩 등장하는 정도다. 특히 후자에서는 티무르조 시기의 특정 물

<sup>15</sup> 아미르나 왕족에게 사여할 때는 100,000디나르-케베키를, 종교시설에는 10,000디나르-케베키를 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Khwandamir, 1955~1956: 557). 그런데 디나르의 가치 변화를 막론하고 종교시설에 10,000디나르를 사여하는 것은, 이슬람권의 여러 시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탕가’로 책정한 사례가 등장하여 당대의 실 상황을 반영한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몽골제국 이전의 동전조차도 ‘탕가’라고 표현하여 혼란을 자아낸다.<sup>16</sup> 그렇다면 기존 연구에서는 이 두 화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을까.

티무르조의 화폐에 관한 언급에서 빠질 수 없는 러시아의 화폐 연구가 다비도비치(Davidovich)는 티무르조에서 주조된 실존 화폐인 탕가와, 주로 기록상 남아 있는 디나르-케베키에 관해 각기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으나 두 화폐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티무르조의 실물화폐에 관한 가장 자세한 컬렉션을 남긴 스테판 엘범은 몽골 이후의 이란 화폐를 소개한 컬렉션의 머리말에서, 탕가는 디나르-케베키에서 유래되었으며, 티무르조에서 탕가는 ‘계산 디나르(Accounting dinar)’의 관념상 양에 따라 그 값어치가 결정되었다고 서술하였다(Album, 2011: 242). 또한 디나르-케베키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이 디나르가 티무르조에서는 은화에 대한 ‘계산을 위한 개념(Accounting term)’으로 적용되었다고 하였다(Album, 2011: 7).<sup>17</sup>

그렇다면 ‘계산 디나르’라는 것은 무엇인가. I장에서 보았듯이 이는 일한국에서 가장 칸 개혁 시기에 처음 나타난 3미스칼짜리 은화 디나르를 가리키는 수식어다. 당시에 이 화폐는 실존 화폐였으며, 디나르-케베키는 본래 이 화폐를 모방하여 케백 칸이 차가타이한국에 들여온 대형 은화 디나르의 명칭이었으므로 같은 ‘계산 디나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산 디나르’의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칸은 화폐 개혁에 관한 자신의 칙령에서, ‘주조된 은화를 무게로 소비하기 위해 3미스칼을 1계산 디나르로 삼도록’ 하였다(Kolbas, 2005: 316).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칸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누구도 동전을 자를 수 없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왕국 전역에서 자신이 규정한 ‘동전 및 그

<sup>16</sup> 통사인 『전기들의 벗』 1권에는 ‘칼리프 우마르의 이름을 그 탕가들(Tankzāt)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고(Khwandamir, 1955~1956: 488) 조로아스터교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시기의 이란 군주였던 Vishtaspa 1세가 처음으로 탕가(Tangha) 위에 배화성전의 형상을 새겼다고 기록하였다(Khwandamir, 1955~1956: 201) 그러므로 혼데미르는 이 탕가라는 단어를 티무르조의 특정 화폐의 명칭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동전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보았던 것이다.

<sup>17</sup> 이는 티무르조의 몇몇 사료에서 ‘계산(Rā'ij)’이라는 단어로 디나르-케베키를 수식하고 있음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순도'에 관한 각인이 담긴 진짜 화폐) 외에 다른 것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이 조치는 당시에 만연해 있던 다양한 무게와 순도를 지닌 화폐의 유통을 저지하고, 일한국의 중앙정부에서 정한 규격 이외의 무게나 순도를 지닌 화폐, 악화(惡貨)를 시장에서 없애기 위한 대책의 일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한국의 경쟁국이었던 맘룩조에서 남긴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거래에 있어서 3개의 기본이 되는 규범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그다드의 규범이다. 바그다드에는 2개의 디나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al-'Awāl이라 부르며 12디르함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al-Mursal이라 불렀는데 이 디나르는 10디르함이다. 두 번째는 타브리즈의 규범으로, 바그다드와 후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적용된다. 그것은 al-Rā'ij라 부르며 6디르함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후라산의 규범인데, 4디르함을 포함한다(al-Qalqashandī, 1914: 422-423).

이 기사는 맘룩조의 알 우마리(al-'Umari)의 이슬람력 740~741년(1399~1400) 저서를 인용한 알 칼카산디(al-Qalqashandī)의 814년(1411~1412) 저서 *Subḥ al-A'sha*의 기사다. 이 기사에도 역시 디나르의 종류 중에 '계산을 위한(al-Rā'ij)' 디나르가 등장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는 당시에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대형 디나르를 주조하는 관행' 중에 타브리즈의 관행이었다. 즉 화폐 주조소는, 당대의 유통 은화인 디르함이 이 '계산 디나르'의 무게와 일정한 정수배(6배)를 이루도록 주조해야 하며, 이를 어긴 화폐는 공인된 화폐가 아니었다. 이러한 관행은 당시에 이미 몇몇 지역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가장 칸은 그중에 타브리즈의 관행을 채택하여 전국에 적용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칸의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화폐 유통 상황에 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칸 재위 당시 타브리즈에서는 1미스칼(≒4.24g)의 12Qīrāt, 즉 1/2미스칼짜리 은화가 새로운 1디르함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나, 이미 이전 시기에 주조된 화폐, 혹은 다른 지역에서 주조된 화폐 등이 여전히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일한국은 압바스 칼리프조의 약세(弱勢)와 지방 분권화 경향에 따라 여러 정권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페르시아-이슬람권 대부분의 영역을 통일한 국가였는데, 그 안에는 예부터 서

로 다른 통화 권역(Currency Zone)이 형성되어 있었다. 스테판 엘범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일한국 내의 통화 권역은 5개(타브리즈, 바그다드, 니사푸르, 시라즈, 아나톨리아)로, 각각의 권역은 예부터 지방 군주의 주도하에 다른 기준의 무게를 지닌 화폐가 주조되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주조된 화폐는 같은 1디르함의 액면가를 갖더라도 그 화폐의 상태, 연식, 주조의 주체, 무게, 순도 등에 따라 다른 값어치를 갖게 된다. 일한국은 이러한 여러 통화 권역을 단일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기존의 여러 권역에서 주조된 다종(多種) 화폐의 혼재가 야기하는 불편과 해악을 막고자 이와 같은 해결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

한편 티무르조에서는 차가타이한국의 선례에 따라 디나르-케베키라는 ‘계산 디나르’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스테판 엘범에 따르면 탕가는 디나르-케베키에서 유래하였으며 이슬람력 782년(서력 1380~1381년) 후라산에서 새로운 은 금액권(Denomination)으로 처음 등장하였다가, 796년(서력 1393~1394년) 이후 티무르조의 전역으로 확산된 대형 은화다. 그렇다면 차가타이한국 시절에는 대형 화폐의 이름이 디나르-케베키였다가, 티무르조의 화폐 개혁 과정에서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화폐학적 증거상 탕가가 티무르조 영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14세기 후반 이후에도 당대 사료 속에는 서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디나르-케베키’가 금액 단위를 가리키는 독보적인 명칭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보면 디나르-케베키라는 화폐 명칭에 ‘계산을 위한’이라는 수식을 붙여 이것이 여전히 ‘계산 디나르’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티무르조 시기에 왜 이와 같이 사료와 현존 화폐 간의 괴리가 나타났을까, 두 화폐 각각의 기능 및 그 관계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기록에 주로 등장한 디나르-케베키와 실물 화폐로 유통되었던 탕가는 마치, 화폐의 대표적인 두 기능인 ‘계산’과 ‘지불’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탕가는 북인도 델리술탄국의 화폐에 기원을 두고 있어 당시에 통용되던 ‘디나르’, ‘디르함’의 모양과는 확연히 다르고, 티무르와 그 후손들의 고유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전에 수없이 주조·유통되고 있던 다양한 무게의 디나르와 디르함에 공신력을 제거하여 화폐가치를 절하하고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예부터 여러 방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금액 관련 규정, 예를 들면 각 지방의 세액(稅額)이

라든가 출정 관료에게 지급하는 비용, 와크프 회사액과 같은 분야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일거에 탕가로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이전 시대부터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쓰였던 계산 디나르인 디나르-케베키를 ‘계산 화폐’로 삼되, 실제 유통되는 ‘지불 화폐’의 외향과 무게를 전면 개혁하고, 지불 화폐의 가치는 계산 화폐와의 환율을 통해 결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탕가가 대형 디나르의 일종인 디나르-케베키에서 유래하였다는 점과, 후라산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最古)의 탕가가 사마르칸트의 고유 디르함인 미리(Miri)<sup>18</sup>와 4 : 1의 무게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 인용한 우마리의 아랍어 사료를 상기시킨다. 그 내용은, 후라산 니사푸르에서 타브리즈의 계산 디나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 은화 디나르는 4디르함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고유 디르함은 콜바스가 언급하였던, 차가타이한국, 킵차크한국, 그리고 조지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범 몽골 기준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 ‘범 몽골 기준화폐’란 이슬람권의 화폐문화권에 속하게 된 몽골제국의 서부한국들이 교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서로 유사한 값어치를 지닌 화폐다. 예를 들면 킵차크한국의 화폐는 1.6g짜리 순은화이고, 차가타이한국의 화폐는 순도 80%짜리 2g 은화, 일한국의 간접지배하에 있던 조지아의 경우 순도 68.6%짜리 2.33g 은화를 사용하였는데 이 모두가 순은으로 환산하면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 일한국 역시 후라산의 총독으로 있던 가잔 칸이 이와 유사한 화폐를 주조한 바 있으나, 일한국 내의 화폐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여 이를 포기하였다고 한다(Kolbas, 2005: 258-260). 그 후 가잔 칸은 타브리즈에서 이어져 온 독자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개혁을 행하였는데 이는 범 몽골 기준화폐와는 다른 가치를 지녔다.

뒤이어 차가타이한국의 케벡 칸 역시 가잔 칸의 제도를 도입하여 디나르-케베키라는, 1.6g과는 전혀 다른 8g에 가까운 은화와 그것의 1/6 크기인 디르함을 고안하였다. 이 디르함은 1.6g짜리 범 몽골 기준화폐보다는 다소 무게가 작은

<sup>18</sup> 이 미리는 1380년대에 사마르칸트-호레즘에서 사용한 디르함으로, 당시에 여타 지역의 은화가 ‘디나르’라 칭해졌던 것과는 달리 ‘디르함’이라 새겨져 있다.

편이며, 당시에 이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1디르함짜리 1.44g 은화와 무게가 비슷하였다.<sup>19</sup> 그러므로 케벡 칸이 디나르-케베키와 1/6짜리 디르함을 주조하였을 때 참고한 무게는 당시 일한국에서 통용되던 화폐의 무게였고, 이는 일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4세기 중반에 일한국이 멸망하고 차가타이한국이 쇠퇴하면서 화폐의 통일성을 강제하는 권력이 사라지자, 다시금 다양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에는 사마르칸트 고유 디르함과 같은 옛 지방 화폐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고유 디르함은 디나르-케베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착 입지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티무르조의 재정 관료들은 마와라안나흐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티무르조의 입지를 반영하여, 이 고유 디르함을 그대로 이용하되 그것과 4배 차이가 나는 탕가라는 대형은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탕가의 첫 무게는 현존하는 동전마다 오차가 다소 있지만 대략 6.4g 정도의 크기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탕가는, 일한국에서 사용한 타브리즈의 관습에 의거하여 그곳의 디르함과 1 : 6의 무게 비율을 갖도록 주조된 대형 은화 ‘디나르-케베키’에서 유래하였지만, 티무르의 모든 재정 관료-와지르들의 출신지였던 후라산의 관습에 따라 사마르칸트 고유의 디르함과 1 : 4의 무게 비율을 갖도록 주조된 또 다른 대형 은화-디나르였던 것이다.

이러한 화폐제도의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기록은 1404년에 티무르조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카스티야의 사신 클라비호의 여행기다. 이 여행기에는 티무르조 내에서 통용되었던 여러 화폐의 가치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티무르는 사마르칸트 디반의 수장인 디나의 과실에 대해 400,000‘Pesantes’의 벌금을 책정하였는데, 클라비호는 1Pesante가 1은-리알이자 4실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다. (2) 티무르 어전에서의 연회가 끝난 후에 한 관료가 은으로 된 접시를 들고 나와 탕가(Tanga)라는 이름의 티무르조 통용 화폐를 공중으로 던졌는데, 이 탕가의 가치는 2은-리알이었다. (3) 그가 아나톨리아의 에르진잔을 지날 때, 그곳의 수령인 타하르탄이 티무르에게 9,000Asper를 바치고 목숨을 구하였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Asper가 1/2

<sup>19</sup> 이 무게는 가장 칸의 개혁 이후 수차레 은화 무게 절하 조치에 따라 아부사이드 칸 시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1디르함의 무게였다.

은-리알의 가치를 지녔다고 하였다. (4) 그는 사마르칸트의 물가에 대해 소개하면서, 3펜스 혹은 1/2리알의 가치를 지닌 동전인 Meri를 가지고 3/2부셀(Bushel, 8켈린)의 보리를 살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Clavijo, 1928). 이 기록을 볼 때, 2번의 탕가는 당대의 지불 화폐라면, 1번의 사례에 나타난 Pesante는 탕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며 화폐라기보다 별금의 값어치를 매기기 위한 기준단위에 가깝다. ‘Pesante’라는 단어 자체가 스페인어로 중량을 헤아리기 위한 분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Pesante는 실물 화폐라기보다는 계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디나르-케베키에 해당한다. 후술하겠지만, 이슬람권 도량형학의 권위자인 힌츠(Hinz)의 유명한 연구에 의하면 티무르조의 15세기 중반까지 ‘1탕가 = 2디나르-케베키’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는데,<sup>20</sup> 1Pesante가 1은-리알이고 1탕가가 2은-리알이라는 클라비호의 기록은 이 등식에 부합한다. 한편 3번의 Asper는 아나톨리아의 화폐인 ‘악차(akçe)’이고 4번의 Meri는 사마르칸트의 디르함인 ‘미리’인데, 미리나 악차가 모두 탕가의 1/4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 역시 당대의 상황과 일치한다.<sup>21</sup> 미리는 전술하였듯이 사마르칸트의 고유 디르함인데, 그 무게가 탕가의 1/4였기 때문이다. 14세기 스페인에서 1리알의 무게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3.1~3.5g 사이였으므로, 처음 주조되었을 때 6.4g 정도였던 탕가를 2리알의 가치에 비정한 것 역시 시의에 맞는 견해라 볼 수 있다.

한편 탕가와 디나르에 관한 기록은 스페인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명나라의 여행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413~1415년 사이에 영락제와 샤루흐 사이의 우호 관계에 따라 티무르조의 수도를 방문한 진성(陳誠)은 헤라트의 화폐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다.

<sup>20</sup> 힌츠는 티무르조 사료인 *Shams al-Siyāq*의 8번째 논문에서 1탕가는 2디나르-케베키이자 6디나르-바그다디, 그리고 12디나르-이라키이자 18디나르-타브리지라는 등식을 발견하였다. 이 사료는 1439~1441년 사이, 헤라트에서 샤 루흐의 카디로 복무하였던 알리 시라지(Alī Shirāzi)가 와지르 마을라나 샤라프 앗 딘의 명을 받아 행정 및 재정 문제에 관한 여러 논문을 작성하여 모은 10개 논문의 모음집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중반까지는 1탕가 = 2디나르-케베키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Hinz, 1957: 368-370).

<sup>21</sup> 악차는 티무르조 이전부터 아나톨리아에서 통용되었던 화폐인데, 본래 그 무게는 미리보다 다소 작은 1.3~4g 정도였다. 그러나 티무르조의 화폐개혁이 있는 이후 악차의 무게도 1.5~6g까지 상승하였다.

(그곳에는) 은전이 통용되는데, 큰 것의 무게는 1전 6분으로, 이름은 탕가(deng-ge, 等哥)라 하였다. 다음 것은 1개당 무게가 8분이며, 디나르(di-na, 抵納)라 하였다. 또한 그다음 것은 1개당 무게가 4분이었는데, 가즉미(假卽眉, jia-ji-mei)라 불렸다. 이 세 등급의 화폐는 어떤 이가 스스로 만들어, 만든 후에 국주(國主)의 거처에 운반하여 세금을 내고, 인장을 이용하여 기재한 다음 교역에 이용하니, 만일 인장의 기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가즉미 이하의 것은 동전(銅錢)을 만드는데, 그 이름은 풀루스(pu-li, 蒲立)이다. 그 여섯 혹은 아홉이 1가즉미에 해당하며, 오직 그 땅에서만 사용되고 (지역을 거슬러) 통용될 수 없다(陳誠, 2000: 67).

이 기록을 보면 3개의 화폐가 등장하며, 각각의 이름은 탕가와 디나르(-케베키), 그리고 가즉미라는 화폐다. 가즉미라는 이름의 실제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무게로 볼 때 미리에 해당하는 화폐로 보인다. 진성이 제시한 중국 도량형에 비추어 각 화폐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 탕가는 약 6g, 정도, 디나르는 3g, 가즉미는 약 1.5g의 은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와 부합한다.<sup>22</sup> 또한 이 기록을 통해 III장에서 다룰 지방의 구리화폐, 풀루스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록을 보면 마치 디나르(-케베키)가 실물화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것은 당시의 탕가 유통 상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미리가 탕가의 1/4 크기를 지닌 화폐라 하였는데, 이 화폐는 마와라안나흐르와 호레즘에서 유통되었던 지방 화폐이므로 타 지역에서는 알려진 화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리 단위의 화폐는 타 지역에서는 ‘1/4탕가’라는 이름으로 주조되었다. 그런데 티무르조에서는 1/4탕가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1/2탕가 단위의 화폐 역시 주조되었다. 이렇듯 소액권 혹은 배수 단위의 대액권이 주조되는 양상은 이슬람권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당시에 티무르조의 디나르-케베키는 탕가의 절반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1/2탕가짜리 화폐가 디나르-케베키와 동일시될 수 있었다. 즉, 화폐의 액면가치는 1, 1/2, 1/4탕가였으나 그 이름이 탕가, 디나르(-케베키), 디르함(혹은 지역에 따라 미리, 약차 등)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sup>22</sup> 이는 1전을 3.75g로 하는 조선의 무게기준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나, 중국에서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2. 탕가의 무게 감소와 환율의 변화

1절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자면 티무르조에는 관념상 두 종류의 대형 은화가 공존하였으나 실제로 주조되었던 액면화폐의 이름은 ‘탕가’였다. 그런데 이 화폐 역시 일한국과 그 이후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가 감소하였다. 다비도비치는 실제로 발견된 티무르조 130년간의 수많은 탕가들을 무게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통계 내어, 탕가가 14세기 말~15세기 상반기 내에 4차례의 무게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탕가의 무게는 티무르 재위 후반부인 1390년대에 6.4g에서 시작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가치절하의 시점마다 0.4g씩 감소하여 결국 티무르조 말기~샤이바니조 초기에는 4.8g까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공차인 -0.4g는 미스칼의  $1/12(=1/2 \text{ Dāng}, \text{ 곧 } 2 \text{ Qīrāt})$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sup>23</sup> 즉, 첫 탕가는 1미스칼 +  $2\text{Dāng} = 4.8 + 1.6 = 6.4\text{g}$ 였으나, 화폐의 무게가 개정될 때마다 무게가  $1/2\text{Dāng}(=0.4\text{g})$ 씩 감소하여 6.0g, 5.6g, 5.2g을 거쳐 4.8g까지 감소하였던 것이다.

첫 번째 탕가의 무게가 6.4g이었다는 점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전거가 바로 서론에서 인용한 기사인데, 티무르 사망 직후 헤라트의 상황에 관한 기록 중 나타난 “2미스칼의 순은 = 3디나르-케베키”라는 기록은 곧 1디나르-케베키가  $2/3$ 미스칼의 순은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전술한 힌츠의 ‘1탕가 = 2디나르-케베키’라는 등식을 적용하면 1탕가는  $4/3$ 미스칼, 즉 ‘1미스칼 +  $2/6(= 2 \text{ Dāng})$ ’이 된다.

한편 필자는 다비도비치가 언급한 모든 단계에 관한 사료적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슬람력 827년(1423~1424)에 탕가의 무게가 5.6g에서 5.2g으로 감소한 이후의 기록은 사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17세기 이란 야즈드의 지방 사서 『무피드 사(*Jāmi' Muḥīdī*)』에는, 현재까지도 야즈드의 도시 중심을 차지하고

<sup>23</sup> Dāng(Dāniq)은 1미스칼의  $1/6$ 을 나타내는 것이다.  $0.5\text{Dāng}$ 은 곧  $2\text{Qīrāt}(2/24\text{미스칼})$ 와 같으므로 일한국의 은-디나르 감소과정과 같은 무게씩 감소한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일한국의 미스칼과 티무르조의 미스칼은 각각 (약) 4.25g과 4.8g으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무게씩 감소한 것은 아니다.

표 1 티무르조 탕가의 무게 감소 현황

연도	무게		법칙
	Davidovich	Album <sup>24</sup>	
티무르 재위	6.4g	6.2g	$4.8 + 2/6(2Dāng)$
샤 루흐 1(807~812)	6.0g		$4.8 + 1.5/6(1.5Dāng)$
샤 루흐 2(807~819)	5.6g	5.6g	$4.8 + 1/6(1Dāng)$
샤 루흐 3(827~ )	5.2g	5.15g	$4.8 + 0.5/6(0.5Dāng)$
티무르조 이후(890s~ )	4.8g	4.78g	$4.8 + 0/6(0Dāng)$

있는 아미르 차크막(Amir Chaqmāq)과 그의 부인이자 고히르샤드(Gūharshād, 샤루흐의 부인)의 자매, 세티 파티마(Setī Fātima) 카툰의 성묘(聖廟)에 관한 와크프나마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년마다 계산 화폐인 순은 디나르-케베키로 2,160 디나르가 성묘 측에 제공되었다는 것인데, 이때 2디나르(케베키)는 곧 1미스칼과 반 당(1k Mithqāl wa nīm dāng)의 무게를 가진다고 부가(附加)로 설명하고 있다(Bafqī, 2006~2007: 881). 이 와크프나마는 이슬람력 849년(1445~1446)에 저술되었으므로 저술 시점은 전술한 표 1의 ‘샤루흐 3’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2디나르-케베키 = 1탕가가 곧 ‘1미스칼과 반 당’의 무게를 지녔다는 것이다. 샤루흐 재위 시기에 주도된 탕가에 대해 사료에서는 특별히 ‘탕가-샤루히(Tanga-yi Shārukhi)’라 불렀고, 마잔다란의 지방지에는 마잔다란, 아몰의 세액을 ‘탕가-샤루히’로 책정하기도 하였다(Mar’ashī, 1985~1986: 280, 288).<sup>25</sup>

<sup>24</sup> 스테판 엘범 역시 이슬람 화폐의 경매를 위한 카탈로그에서 비슷한 전술한 다비도비치의 이론과 유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다만 시대구분방식이 약간 달라 상기의 표와 같이 비교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역시 티무르 재위 후반부인 이슬람력 796년경, 페르시아-이슬람 문화권의 여러 권역에서 1~2g 사이의 다양한 중량을 지닌 기존의 2디나르 동전을 대신하여 ‘탕가’라는 새로운 무게를 지닌 화폐와 그 1/4 크기의 화폐가 일률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을 티무르조의 화폐 개혁이라 보고, 이 개혁 이후 시기의 화폐 발전 단계를, 티무르 재위 / 샤루흐 시기의 다섯 단계 / 그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 구분은 무게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어서, 어떤 단계는 무게가 같으나 디자인이 달라진 시기도 있고, 혹은 샤 루흐가 스스로를 칼리프로 칭하여 종교적 문구를 담은 면에 특수한 문구를 새겨 넣었던 시기도 별도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한편 그는 다비도비치가 구분하였던 처음의 두 무게 단계, 6.4g와 6.0g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 값을 취하였다.

<sup>25</sup> 이 ‘샤 루흐의 탕가(Tanghzāt-i Maskūk-i Shārukhi)’라는 표현은 사마르칸디의 사서에도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사용된 시점이 티무르 사후 샤루흐가 조금씩 후라산과 그 주변에서 등지에서 자신의 세력을 펼쳐 가던 이슬람력 807년이므로, 이 단어는 위에서 나열한 샤루흐 시대의 탕가 중에

표 2 티무르조 탕가와 디나르 케베키의 관계

무게		법칙
탕가	디나르-케베키	
6.4g	3.2g	$1/2 + 4/24(4Nuqūd)$
6.0g	3.0g	$1/2 + 3/24(3Nuqūd)$
5.6g	2.8g	$1/2 + 2/24(2Nuqūd)$
5.2g	2.6g	$1/2 + 1/24(1Nuqūd)$
4.8g	2.4g	$1/2 + 0/24(0Nuqūd)$

한편 1탕가가 1미스칼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기록한 사료는 주로 티무르조 말기의 것이다. 특히 샤이바니 칸이 마와라안나흐르와 헤라트를 정복하였던 1506~1507년경의 사료에 “1미스칼짜리 탕가(Tanghcha yak-mithqālī)”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현존하는 화폐 유물 중에 1미스칼의 무게를 지닌 탕가는 후세인 바이카라의 재위 후반, 정확히는 이슬람력 892년(1487~1488)부터 등장한다(Album, 2011: 264). 이렇듯 현존하는 여러 화폐 유물 및 사료적 증거를 정리하면, 1탕가의 무게는 티무르조를 거치는 동안 1미스칼 + 2Dang에서 1미스칼까지 감소한 셈이다.

한편 티무르조의 디나르-케베키는 발견된 실물 화폐가 없고, 실질적으로 디나르-케베키라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1/2탕가 화폐도 발견된 바가 많지 않아, 그것의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술한 힌츠의 연구에서 도출한 바에 따라 1탕가가 2디나르-케베키라면, 1디나르-케베키는 탕가의 반절인 1/2미스칼 + 4누쿠드(Nuqūd)<sup>26</sup>(≒3.2g)에서 시작하여, 1누쿠드씩 감소하여 티무르조 말기에는 1/2미스칼이 된다. 그러므로 티무르조의 계산화폐 단위인 디나르-케베키는 차가타이한국의 케벡 칸이 주조-반포한 2미스칼(≒ 8g)짜리인 디나르-케베키와는 전혀 다른 무게의 화폐인 것이다. 힌츠는 전술한 연구에서 디나르-케베

특수한 탕가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샤 루흐의 이름 혹은 인장을 새긴 탕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연구자들 중에는 ‘샤루흐의 탕가(Tanghzāt-i Shārukhi)’를 디나르-케베키처럼 특수한 탕가의 형태라 보는 이도 있다

<sup>26</sup> 페르시아에서 1/24미스칼을 의미하는 단위로, 약 0.195g 정도다. Qirāt, Tasū(Tasū)와 유사한 개념이다(Hinz, 2003: 35).

키의 무게를 이전 시기와 동일한 8g으로 보아, 탕가의 무게뿐 아니라 이 등식이 이어지는 다른 화폐 단위의 무게도 잘못 비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다.<sup>27</sup>

과연 그렇다면,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가는 힌츠가 찾아낸, 전술한 이슬람력 849년의 기록처럼 줄곧 1 : 2이었을까? 티무르조 말기~샤이바니조 시기의 사회경제사적 연구를 진행한 마리아 섭틀니(Maria Subtelny)는 다비도비치나 스테판 앨범 등의 연구를 이용하면서도, ‘1탕가 = 3디나르-케베키’라는 또 다른 등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로 다비도비치가 발견하여 제시한 *Jawāmi’ al-’Aliyāt* 라는 쿠브라위야 교단 수피의 사료 속에 등장하는 티무르조 말기의 기사에 근거한다.

2만 3,000디나르 케베키의 가격은 - (이때) 3디나르의 무게는 1순은-미스칼에 해당하며, 헤라트에서는 18디나르(-헤라티)로 계산된다(Давидович, 1983: 48).

이 문서는 이슬람력 901년(1496)의 기록인데, 전술하였듯이 당시에 탕가의 무게는 1미스칼이었으므로, ‘3디나르-케베키의 무게가 1순은-미스칼’이라는 것은 당시 탕가와 디나르 케베키의 비가가 1 : 3임을 의미한다. 또한 헤라트 지방의 화폐인 탕가와 디나르-헤라티 비가의 비율이 1 : 18이므로, 세 화폐의 비율은 1 : 3 : 18이다. 한편 다비도비치는 이러한 티무르조 말기의 워크프나마 문구 등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후라산에서 1/3미스칼, 1/6미스칼 무게의 소액 은화가 유통되었는데, 그것을 ‘디나르-케베키’, 혹은 ‘아들리 케베키(‘Adl-i Jayd Rāij Kebekī)’

<sup>27</sup> 한편 미국의 티무르조 역사가인 만츠(Beatrice Forbes Manz)는 그의 저서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에서 힌츠의 연구를 인용하여, 샤 루흐 재위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믿을 만한 통화가 디나르-케베키이며, 이는 다른 디나르에 비해 몇 배의 값어치를 지닌 은화라고 하였다(Manz, 2007: 85). 또한 독일의 학자 프라그너(Bert Fragner) 역시 힌츠의 논문을 인용하여 디나르-케베키의 무게를 8g으로 설정하였고, 디나르-이라키나 디나르 타브리지 등은 그것의 1/6에 해당하는 무게인 은화로 보았다. 반면에 디나르-케베키의 2배 무게인 탕가에 대해서는, 당대의 5g 정도 되는 탕가가 아닌 또 다른 탕가로 보았다. 특히 오스만조에서 3탕가가 곧 1샤루히(Sharukhi)라는 비율에 착안하여 티무르조에도 본래의 탕가보다 약 3배의 무게(약 15g)인 또 다른 탕가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지방지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탕가-샤루히’는 1미스칼 + 0.5당의 은화로, 티무르 재위시기 6.4g였던 탕가가 샤루히 시기에 점차 무게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탕가 중 하나일 뿐이다(Fragner, 1993: 556-560). 오스만조에서의 탕가는 아마 약차였을 것이고, 이는 무게가 1.6g이었으므로 1미스칼 남짓 되는 1샤루히, 즉 티무르조 샤루히시대의 탕가의 약 1/3에 해당되었다.

라 불렀다고 하였다(Davidovich et al., 1994: 413).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디나르 케베키가 실제 화폐가 되었으며, 새로 등장한 ‘아들리 케베키’는 무엇일까? 전술하였듯이 티무르조 상반기에 주로 유통되던 화폐들은 각기 탕가, 디나르-케베키, 미리(디르함)으로 불렀는데 이들 간의 관계는 1탕가 = 2디나르-케베키 = 4미리(디르함)였다. 그렇다면 티무르조 말기에 등장한 1/3탕가는 본래의 디나르-케베키보다는 작고, 미리보다는 크다. 한편 티무르조에서는 1/4탕가, 즉 미리가 소액권으로 많이 주조되었으나 전술하였듯이 1/2탕가도 있었고 간혹 1/3탕가짜리 화폐도 있었는데, 1/3탕가는 디나르-케베키나 미리(디르함)처럼 대응될 수 있는 화폐명이 없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탕가의 무게가 꾸준히 감소하여 15세기 말, 후세인 바이카라의 개혁을 통해 4.8g(1미스칼)에 이르게 되면서 1/3탕가는 1.6g이라는, 이슬람권의 여러 곳에서 오랜 역사를 지녔던 특정 무게, 즉 ‘범 몽골 기준화폐’의 무게를 갖게 되었다.

4.8g짜리 화폐는 이슬람력 892년(1486~1487)부터 주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는 1/4탕가 화폐(1.2g)도 함께 주조되었다. 그러나 점차 티무르조의 내부 상황이 통일성을 상실하면서 몇몇 지역(특히 이란 북부의 마잔다란)에서 티무르조의 화폐제도에 어긋나는 화폐가 등장하였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오랜 역사를 지닌 이전 시대의 1.6g 무게를 지닌 화폐다. 이 무게의 화폐는 여전히 주변국과의 무역 등으로 인해 쓸모가 있어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이 1.6g 화폐가 이 시기 사료에서는 디나르-케베키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본래 티무르조 이전에 이 무게를 가진 화폐는 ‘미리’였으나, 이 시점에는 1.6g 화폐를 2미리, 혹은 3미리나 5미리로 취급하는 등 미리의 무게는 확실한 기준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의 기록보다 약 10년 후인 이슬람력 912년(1506), 헤라트의 수석 카디인 쿠틀앗 딘 무함마드라는 이의 입장을 담고 있는 후세인 바이카라의 아내 아파크 베굼의 성묘(聖廟)에 관한 와크프나마에는 여러 항목에 관한 금액이 제시된 후, “전술한 모든 금액은 계산을 위한 아들리-케베키로 제시되었는데, (이 화폐) 6디나르는 순은 1미스칼의 무게를 지녔으며, 헤라트에서는 36디나르-헤라티로 계산된다.”<sup>28</sup>라는 부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와크프나마의 번역을 저서

<sup>28</sup> 섭틀니는 ‘아들리’를 일반 명사처럼(True-value) 번역하였지만(Subtelny, 2007: 311), 다비도비

에 수록한 마리아 셉틀니는 스테판 앨범의 연구 및 다비도비치의 1971년 논문 등을 참고하여, 1디나르-케베키는 6디나르-헤라티이며, 1탕가는 3디나르-케베키 즉, 18디나르-헤라티라고 하였다(Subtelny, 2007: 311). 그러나 15세기 말에 1탕가가 1미스칼의 무게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위의 사료의 내용은 ‘순은 1미스칼 = 1탕가 = 6아들리-케베키 = 36디나르-헤라티’로 정리할 수 있고, 이로써 탕가와 디나르-헤라티의 비가(比價)가 10년 전의 기록에 비해 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비도비치는 901년과 912년의 두 기록을 조합하여 아들리-케베키는 1/6미스칼, 디나르-케베키는 1/3미스칼의 화폐라 보기도 하였으나, 이 두 가지 기록은 혼용해서는 안 되는데, 두 기록에서 탕가 : 디나르-헤라티의 비율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비도비치가 참고한 와크프나마의 여러 기록 중에는 아들리-케베키가 1/3미스칼이라는 기록도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나르-케베키나 아들리-케베키 모두 같은 ‘케베키’계의 계산 디나르로, 이것의 무게가 901년에서 912년 사이에 1/3미스칼에서 1/6미스칼로 반감(半減)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한편 912년 와크프나마에서의 비율과 동일한 상황이 이슬람력 913년(1507)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이 기록은 티무르조의 수도 헤라트가 샤이바니 칸에게 정복되었을 때 그가 여러 토착 유력자들에게 탕가를 징수한 사건에 관한 기사인데, 당시 헤라트의 토착 유력자이자 직접 샤이바니 칸에게 탕가를 납부하였던 혼데미르의 사서 『전기(傳記)들의 벗』에 남아 있다.

(1507년에), 무함마드 칸은 명을 내려 우선, 헤라트인들의 안전을 위한 세금과 조공을 정하라고 하였다. 그때에 대인들과 귀족들을 고귀한 회합으로 불렀고, 마울라나 압둘 라힘과 호자 카말 앓 딘 마흐무드는 그에 관해 대화하여 정하기를, 일반 백성들과 장인들은 그때 6디나르로 통용되었던 1미스칼짜리 탕가(Tankcha) 10만 개를 내도록 하였고 높은 대인들과 소유르갈을 지닌 이들은 2만 탕가의 액수를 칸을 위한 특수한 조공으로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울라나 압둘 라힘에게는 1만 5,000탕가를 바치도록 하였다(Khwāndamir, 1955-1956: 377-378).

치는 이 ‘아들리 케베키’가 특정한 화폐라고 보았다(Давидович, 1983: 48).

세계를 정복하시는 간께서는 드높으신 열의로 내리신 결정으로 명하셨다. 반 당(Dāng)을 옛 탕가들(Tankzāt)<sup>29</sup>에 덧붙이도록 하라. 그리하여 축복받은 세계를 장식할 때, 각각을 6디나르-케베키(의 가치)로 유통하고, 이전의 1미스칼짜리 탕가는 5디나르로 삼도록 한다(Khwāndamir, 1955~1956: 379).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티무르조 탕가의 무게는 1미스칼이고 6디나르(-케베키)에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샤이바니 칸이 자신의 이름이 담긴 새 탕가의 기준 무게를 기존의 것에 비해 증량하고, 옛 티무르조 시기의 1미스칼짜리 탕가는 5 디나르-케베키로, 자신의 새로운 탕가는 6디나르-케베키의 더 높은 가치를 갖도록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과 관련하여 마리아 섭틀리는 샤이바니 칸의 화폐개혁을 통해 1미스칼의 은이 3디나르-케베키였다가 5디나르-케베키가 되어 ‘디나르-케베키/탕가의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Subtelny, 2007: 255), 이는 1탕가가 1미스칼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1탕가 = 3 디나르-케베키’라는 공식만 고려한 것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1디나르 케베키가 1/3미스칼-은의 가치였다가 1/5미스칼이 되면 탕가 역시 1미스칼-은의 가치를 지니다가 3/5미스칼로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두 화폐의 가치가 이 화폐개혁으로 인해 모두 하락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료에서 ‘1미스칼의 은’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그 당시 1탕가가 1미스칼의 고정된 무게를 지니는 실제 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크 베금의 와크프나마가 기록된 이슬람력 912년에 이미 ‘1미스칼의 탕가가 6디나르(-케베키)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샤이바니 칸이 화폐개혁을 행하기 전에 이미 ‘1탕가 = 6디나르-케베키’로 또한 번의 변화를 겪은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샤이바니 칸이 6디나르였던 망국의 탕가 가치를 5디나르로 절하하고, 새로 건국된 국가의 탕가 가치를 6디나르로 정한 것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화폐의 공존이 불가피할 때 하나의 화폐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샤이바니 칸은 자신의 이름을 새길 새로운 탕가를 1미스칼 + 1/2Dāng의 무게로 주조하여 옛 탕가

<sup>29</sup> 이 단어는 위에서 언급된 Tankcha의 아랍어식 복수형이다. 또한 다비도비치는 ‘Tankcha’가 ‘Tanka’의 지소형이나, 둘이 모두 티무르조 이래의 은화인 탕가를 지칭한다고 보았다(Davidovich, 1994: 432-433).

와 다른 무게를 갖게 하는 한편, 두 탕가의 값어치를 같게 둘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탕가의 가치는 6디나르-케베키로 유지하고, 티무르조의 탕가는 5디나르-케베키로 가치를 절하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력 901년에서 912년 사이에 발생한 두 화폐의 비가 변화의 의의, 더 나아가 티무르조 전 시대에 걸친 탕가와 디나르-케베키 비가 변화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는 곧 일반 시장에서 은화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사실 이 11년 사이에 실물 화폐에 나타난 변화는, 주로 계산에 사용되었던 디나르-케베키(혹은 아들리 케베키)의 무게가 1.6g에서 0.8g으로 감소한 것뿐이다. 탕가의 무게는 이슬람력 892년(1487~1488)의 개혁을 통해 1미스칼이 된 후로는 변하지 않았으며, 디나르 헤라티의 가치는 항상 1/6디나르-케베키였다.<sup>30</sup>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 주로 디나르-헤라티를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디나르 케베키라는 계산 화폐의 무게가 감소하여 1/3탕가이던 것이 1/6탕가가 되면서 탕가와 디나르-헤라티 사이의 비가가 1 : 18에서 1 : 36로 변화하였으므로, 은화의 가치가 일상 화폐를 기준으로 2배만큼 증가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가가 1 : 2에서 1 : 3으로 바뀐 것이 15세기 80년대 말이므로, 20여 년 안에 탕가 : 디나르-헤라티의 비가는 1 : 12에서 1 : 36까지 3배만큼 증가한 셈이다. 또한 은화를 은괴로 보아 무게에 따른 가격을 따져 보면, 15세기 상반기에 탕가의 무게가 1미스칼 + 2Dāng에서 1미스칼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특정 무게의 은이 갖는 가치는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게 된다. 즉, 이 모든 화폐 제도 변화의 과정은 결국 은화 가치의 상승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은화 가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I장에서 전술하였듯이 일한국의 은화 무게 감소 과정을 분석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한국은 은화의 무게를 축소하는 정책을 통해 군사원정 및 여러 재정적 수요에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은광의 폐쇄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은 공급 문제에 대비하고

<sup>30</sup> 디나르-케베키던 아들리-케베키던 '계산의'라는 수식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수식이 과거에 우마리의 기록에서 제시한 '타브리즈의 규범', 즉 6디르함의 가치를 가지는 디나르에 붙는 수식어임을 상기할 때, 디나르-케베키(아들리-케베키)가 6디나르-헤라티의 가치를 갖는 것 역시 이 규범에서 유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화폐 정책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그 존재에 관한 기록조차 희소한 티무르조의 사료를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Encyclopaedia Iranica*에 이슬람 화폐와 화폐제도에 관한 글을 작성한 스테판 엘범 등은 샤루흐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 ‘부가각인(Countermark)의 만연’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그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 전쟁은 비용소모가 큰데다, 중·서 페르시아는 티무르조 군주의 화폐 수입의 원천이었으므로 결국 화폐 자금의 부족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Album, Stephen et al., 1992).

물론 전술한 중·서 페르시아와의 전투는 샤루흐가 티무르 사후 티무르조의 여러 왕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사건이다. 이후 중·서 페르시아에는 샤루흐의 아들 이브라힘 술탄이 파견되었으며, 그와 샤루흐와의 관계는 그가 사망하던 1435년까지 안정적인 편이었다. 다만 15세기 전반 샤루흐의 재정이 티무르 재위시기보다 부실하다는 점은 역사적 상황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샤루흐는 1405년 티무르 사망 시기부터 1414년 중·서 페르시아를 차지하였던 조카 이스칸다르의 처형 때까지 근 10년 동안 티무르조 각지의 여러 왕자들과 전쟁과 갈등을 빚었다. 그 왕자들 중에는 사마르칸트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티무르의 모든 재화를 차지한 할릴 술탄, 중·서 페르시아의 이스칸다르와 그의 형제들, 아제르바이잔의 미란샤와 그 가문, 바닥산에서 시스탄 사이의 조카 피르 무함마드가 있었고 그들은 휘하 아미르들 및 부족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많은 사여를 베풀었다. 이러한 낭비가 극에 달해 할릴 술탄은 티무르가 35년간 축적한 모든 물자를 4년 만에 소모해 버렸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은화의 무게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샤루흐라는 군주가 창업 군주가 아닌 수성 군주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샤루흐 시기인 15세기 전반에는, 초기 10년의 내부 갈등과 3차에 걸친 아제르바이잔 원정 외에는 큰 원정이 없었다. 그런데 티무르가 14세기 후반에 원정을 통해 국가의 영역 바깥, 즉 러시아 킵차크한국, 북인도 델리술탄국, 아나톨리아 오스만조, 시리아 맘룩 술탄국 등에서 막대한 물자뿐 아니라 은화를 약탈하거나 몸값으로 징수한 것을 상기해 보면, 이 거대한 규모의 재정 수입은 샤루흐 시기에는 단절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420년대에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원정은 약탈 원정이 아니었고, 그곳의 투르크멘 부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서 페르시아에서 화폐 수입의 감소 문제는 샤루흐 재위 말기에 본격화된다. 1440년대에 그곳으로 파견된 그의 손자 술탄 무함마드의 반란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의 샤루흐 지배가 약화되었고, 결국 투르크멘 부족 연합인 카라코운루가 점차 동진(東進)하여 1452년 이란 중부의 도시 야즈드를 차지하였으므로 티무르조는 15세기 중반에 이 일대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페르시아 중·서부의 여러 도시들은 티무르 재위 시기부터 중요한 은화 세원(稅源)이었는데, 이곳을 상실하게 되면서 은화 수입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후반에는 티무르조의 두 주요 강역인 후라산과 마와라나흐르도 분열되어 각기 다른 군주가 들어섰고, 북쪽으로는 샤이바니조의 공격, 서쪽으로는 투르크멘의 계속되는 공격 등에 시달렸지만 내부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탕가와 헤라트의 비가가 10년 만에 1 : 18에서 1 : 36까지 치솟는 은가의 폭등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15세기 티무르조의 은화 가치 폭등 현상은 티무르조에서 은화의 수입원이 꾸준히 감소했던 상황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티무르조의 재정구조의 자급도가 높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한 가운데, 건조지대에 위치한 유목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은 부족을 야기하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건조지대 유목국가의 주요 경제활동이었던 중개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티무르조는 이전의 몽골제국 시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중개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로 그가 광대한 영토를 장악한 이유 또한 유럽과 중국 사이를 잇는 원활한 무역로의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무역은 유목 군주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상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이들에게 상세(Tamgha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슬람법에 저촉되어 피지배층인 타지크 인과의 마찰을 자아내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Mukminova, 1997: 357). 이때 상세 부과 정책에 반대하였던 상인들은 각 오아시스 도시의 유지들이고, 그들 사이에는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많았다. 몽골제국 시기만 해도 군주의 이슬람화가 그리 공고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무슬림을 자처하였던 티무르조의 군주들

은 이슬람법을 거스르고 종교지도자들과 적이 되면서까지 상세를 취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물론 상세는 티무르조 내에서 꾸준히 징수되었으나, 그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수차례 이들의 반발로 인해 폐지되기도 하였다.<sup>31</sup>

또한 중개무역과 관련하여 샤루흐 시기에 진전된 중국왕조, 명(明)과의 관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티무르는 홍무제의 폐쇄적인 대외관계 및 조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공식 무역은 1396년 이후로 단절된 상태였고, 사무역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긴장의 결말은 결국 티무르의 중국 원정 시도로 이어졌다(Rossabi, 1998: 246-248). 그러나 1413년 진성의 사마르칸트 방문으로 시작된 양국 사신의 왕래는 두 국가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였고, 비공식 상단의 왕래뿐 아니라 공식적인 사신 왕래와 조공무역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은경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5세기 명에서는 송(宋)대까지 중국에서 줄곧 사용되었던 청동 화폐, 그리고 원에서 사용한 지폐 대신 은화가 유통되기 시작하였지만, 고질적인 은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 사이에 동유럽 및 스웨덴에서 은 광 개발로 인해 은화 생산량이 증가하여 그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은화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고, 16세기 이후 신대륙에서 생산된 다량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으나 중국은 은의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은을 끊임없이 자국으로 끌어들었다(Atwell, 1998: 388). 이처럼 거대한 은의 블랙홀을 바로 옆에 두고 꾸준히 무역관계를 이어 갔던 티무르조의 은 역시 중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15세기 당시에 중국과 티무르조의 공식 무역은 비단과 말의 교환, 즉 견마무역이 기본이었고 명은 북방의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 말 수급이 시급하였으므로 이 공식 무역의 양상만 놓고 보면 은이 티무르조에서 명으로 향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근세 이후 유럽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 양상을 보면 주로 유럽에서 중

31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5세기 하반기 티무르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낙시반디 수피교단의 지도자, 호자 우베이둘라 아흐라르의 청원으로 인한 1460~1461년의 상세 폐지 사례다(Paul, 1991: 538).

표 3 시기별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율

시기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율
1440년대	1 : 2
1490년대	1 : 3
1506년 이후	1 : 6

국의 물자를 원하여, 결국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티무르조는 둘 사이에서 중개의 위치에 있었고, 다양한 생활용품부터 사치품까지 유목 정권 지배층이 원하는 물자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티무르조의 은 역시 중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무게 변화 및 그 환율 변화 추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15세기 중반까지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가는 1 : 2 였지만, 실물화폐인 탕가의 무게는 1미스칼 + 2당에서 시작하여 0.5당씩 감소하여 15세기 중반에는 1미스칼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15세기 후반 이후로 탕가의 무게는 1미스칼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탕가와 디나르-케베키 사이의 비가가 1 : 2에서 1 : 3을 거쳐 1 : 6까지 하락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등장한 ‘디나르-헤라티’와 같이 지방명을 보유한 디나르, 즉 당대의 구리 디나르에 관한 기록 및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IV. 티무르조의 ‘지방명’을 지닌 디나르

III장에서는 계산 디나르이며 가치의 기준이 되었던 ‘디나르-케베키’를 주로 살펴보았으나, 몇몇 사료에는 이 디나르와 1 : 6 비가를 지닌 ‘디나르-헤라티’라는 화폐에 관한 기록이 병기되어 있다. ‘디나르-헤라티’란 ‘헤라트의 디나르’라는 의미인데, 티무르조에는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의 디나르가 존재하였다.

1탕가 = 2디나르-케베키 = 6디나르-바그다디 = 12디나르-이라키 = 18디나르-타브리지(Hinz, 1957: 368-370)

위의 등식은 전술한 힌츠의 연구에서 도출한 등식으로, 그는 15세기 중반 티무르조의 아랍어 재정 문서인 *Shams al-Sīyāq*에서 이 등식을 발견하였으며, 앞에서 이용한 ‘1 탕가가 2디나르-케베키’라는 정보 역시 이 등식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 보다 주목할 점은, 티무르조에 속한 여러 영역의 이름을 포함한 소위 ‘지방명을 지닌 디나르’들이 이 등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화폐들은 ‘디나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풀루스’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구리 화폐인 경우가 많다(Davidovich et al., 2003: 433). 본래 이 구리 소재의 화폐 중에는 군주의 이름을 새긴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군주의 이름 없이 주소소만 표기되어 있으며, 크기도 무게도 지역마다 시대마다 달라 특정하기 어려운데, 그에 관한 연구는 은화보다도 훨씬 적은 편이다. 티무르조의 구리 화폐에는 보통 ‘Adliya’라 새겨져 있으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화폐를 팔스(Fals), 혹은 복수인 풀루스(Fulūs)라 불렀다. 그 이유는 팔스가 그리스에서 도입되어 시리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조된 이래로 구리 화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으며, 간혹 ‘12디나르-풀루스-이라키의 가치를 지닌 탕가로 1,200탕가의 금액(Mablagh-i Ikhizār wa Divist Tanka-yi Davāzda Dīnārī Fulūs-i ‘Arāqī)’이라는 기록처럼 사료 용어로도 등장하기 때문이다(Bāfqi, 2006~2007: 557).<sup>32</sup> 그에 반해 ‘Adliya’는 일한국 시기부터 나타난 구리화의 명칭인데, 사료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거니와 같은 ‘Adliya’라는 이름을 지닌 같은 지역의 구리화조차 천차만별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의 산정 방식을 파악하기 어렵다(Album, 2011: 259).<sup>33</sup>

그렇다면 이처럼 지방명을 지닌 화폐는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우선 콜바스는 몽골제국의 서진 이전부터 이슬람권에서 진척되었던 화폐 명칭의 의미 변화 현상에 따라, 동전에 새겨진 지명이 점차 동전의 종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과거에는 ‘타브리즈’라는 지명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경우 타브리즈 근교의 모 주소소에서 주조된 동전이라는 의미만 가지는 정도였으나, 몽골제국을 거치면서 ‘타브리즈’라는 지명이 새겨진 화폐는 타브리즈

<sup>32</sup> 이는 1탕가 = 12디나르-이라키라는 의미로, 앞서 1탕가가 2디나르-케베키인 시절의 환율이다.

<sup>33</sup> 일한국 게이하투 칸시기에 주조된 ‘아들리아’ 구리화는 구리에 은도금을 한 것으로 시라즈에서 주로 명맥을 이어 나갔으며, 군주의 이름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그의 후계자인 바이두는 타브리즈에서 비슷한 형태의 구리화를 주조하였다(Kolbas, 2005: 201-202).

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영역 안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브리즈에서 주도하는 양식의 화폐를 통용하였던 도시 카산(Kāshān)의 주조소에서 주조된 화폐의 경우, 카산이라는 주조소 명이 아닌 'Sikka-i Tabriz'라는 각인이 새겨진 채 주조되어 보급되었다는 것이다(Kolbas, 2005: 255).

이 '일정 영역'이란 I장에서 전술한 '통화 권역(Currency Zone)', 즉 스테판 앨범이 거론한 5개의 권역, 니사푸르, 바그다드, 타브리즈, 시라즈, 아나톨리아를 의미하며, 그는 이러한 구분의 전거로 앞서 인용한 우마리의 기사를 들었다. 우마리의 기록에는 바그다드와 타브리즈, 니사푸르(후라산)라는 3개의 독립된 통화 권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스테판 앨범은 여기에 스스로 화폐연구를 통해 발견한 또 다른 독자적 권역인 시라즈와 아나톨리아를 합쳐 5개의 권역이, 각자의 화폐 전통에 따라 독자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고 주변 지역에 자신의 화폐 권위(Monetary Authority)를 부여하였다고 보았다(Album, 1997: 213-239). 콜바스의 일한국 화폐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상기의 다섯 권역은 기본 미스칼의 무게도 각기 다르고, 디르함의 가치를 의미하는 '캐럿(Qīrāt) 수' 역시 각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시대에 일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는 각기 다른 통화 권역에 속하는 다른 무게의 디르함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각 권역의 내수시장이 각기 분리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통화가 뒤섞일 일이 크게 없었고, 권역 간의 교역은 대체로 전국에서 통용되는 상급단위 은화인 디나르, 혹은 발리시로 행하거나 은의 무게로 따지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 한국의 멸망 후에도 이어졌으므로, 이것이 티무르조의 사서에 등장하는 '지역명을 지닌 디나르'의 선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일 한국의 각 통화 권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는 은화 디르함이었지만,<sup>34</sup> 티무르조에서는 하나의 은화, 탕가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통용되는 대신, 지역명을 지닌 디나르는 주로 구리화(혹은 구리의 함량이 큰 은-구리 합금)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판 앨범은 15세기부터 티무르조 중앙정부는 지방 세력에게 구리 화폐의 주조권한을 일종의 특혜로 제

<sup>34</sup> 다만 이 디르함은 일한국이 쇠퇴한 이후에는 디나르로 불리기도 하였다.

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즉, 은화인 탕가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야 하나, 구리 화폐의 경우 지방 세력이 알아서 주조해도 된다고 허가하였다는 것이다.

티무르조 사료에는 본격적으로 지역명 디나르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그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한 지역명 디나르는 ‘디나르-이라키’인데, 이는 이라크(Iraq) 지방<sup>36</sup>과 연결지을 수 있다. 전술한 힌츠의 등식 및 야즈드 지방사서 『무피드 사』의 ‘12디나르-폴루스-이라키의 가치를 지닌 탕가’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디나르-이라키는 ‘1탕가 = 12디나르’의 가치를 가지는 폴루스, 즉 구리 화폐다.

티무르는 이슬람력 801년(1398~1399)에 사마르칸트에 대 마스지드를 건설하였는데, 9,000투만-이라키에 해당하는 1,500투만-케베키를 그곳에 소모하였다(Abrū, 1960~1961: 137).

[이슬람력 820년(1417~1418), 와지르인 아미르 사이드 파흐르 앓 딘에게] 200투만-케베키(200만 디나르)의 금액을 받아들여 1년 안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마도 매일 3만 3,333디나르와 2당-이라키(Dāng-i zar ‘Irāqī)가 될 것이었다. 사이드를 수감하였고 담당자(Muḥaṣṣal)에게 맡겼다(Samarqandī, 1996~1997: 242).

위의 기록에서 디나르-케베키와 디나르-이라키의 비가를 살펴보면, 전자의 기록에서 1,500투만-케베키가 곧 9,000투만-이라키라 하였으므로 1 : 6임을 알 수

<sup>35</sup> 예를 들면 다비도비치는 티무르조 시기 중앙아시아 구리 화폐의 변천 과정에 관해 서술하면서, 울룩베크이 한 차례 구리 동전을 통제하기 위해 부하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구리 화폐가 생산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이 역시 샤 루흐라는 티무르조 중앙 군주의 휘하에 있는 마와라 안나흐르 지방 군주였던 울룩베크이, 자신의 영역에 한정하여 구리 화폐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up>36</sup> 전근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라크’ 지방은 현재의 국가 이라크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범위는 현 이란의 동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북서부를 아우르는 영역인 ‘후라산’의 서쪽, 그리고 시라즈와 그 근방을 가리키는 ‘파르스’의 북쪽, 이란령 아제르바이잔 및 국가 아제르바이잔을 아우르는 ‘아제르바이잔’의 남쪽에 해당한다. 이라크는 일반적으로 이라키 아잠과 이라키 아랍으로 나뉘는데, 이라키 아잠의 주요 도시는 라이나 하마단 등이며, 이라키 아랍의 주요 도시는 바그다드다. 두 지역의 경계는 지금의 이라크-이란 국경과 대체로 일치한다.

있다. 한편 후자의 기록을 해석해 보면, 매일 상환해야 할 33,333+2/6디나르-이라키에 1년의 날짜인 360을 곱하고 6으로 나누면 정확히 200만 디나르-케베키가 산출된다.<sup>37</sup> 즉, 상기의 두 기사는 모두 디나르-케베키와 디나르-이라키의 환율이 1 : 6임을 나타내는 증거다.<sup>38</sup> 두 기사 모두 15세기 전반, 탕가와 디나르-케베키의 비가가 1 : 2인 시대의 기사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야즈드의 세 지방지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 즉 이슬람력 840년(1436~1437)에 호자 타브리지라는 인물이 야즈드의 마스지드 자미에에 봉헌한 금액에 관한 기사를 비교해 보면, 각 지역 구리 디나르의 가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17세기의 사서 『무피드 사』에 따르면 호자는 3,000디나르-케베키를 봉헌하였고(Bāfqi, 2006~2007: 184), 15세기의 사료인 『야즈드 사(Tarikh-i Yazd)』에는 1만 8,000디나르-이라키(Ja'fari, 2005~2006: 96), 역시 15세기 사료인 『신 야즈드 사(Tarikh-i Jadid-i Yazd)』에는 3,000디나르-타브리지를 봉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Katib, 1978~1979: 108). 이 기록을 통해 3,000디나르-케베키 = 1,8000디나르-이라키, 즉 1디나르 케베키 = 6디나르 이라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반면에 디나르-타브리지가 디나르-케베키와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은 힌츠가 제시한 등식과는 전혀 다르다.

한편 디나르-타브리지에 관한 다른 단서는 1507년 샤이바니 칸의 헤라트 입

<sup>37</sup> 이 당시에 1년의 길이는 페르시아 태양력으로는 365일, 연대기나 종교 방면에서 쓰이는 이슬람 태음력으로는 354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한 1년은 페르시아 문화권의 관념상 1년의 길이이다.

<sup>38</sup> 디나르-이라키에 관한 기록은 이라크 지역이 코윤루의 영역으로 넘어간 1450년대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아르바크르 사(Tarikh-i Diyarbakriyya)』에는 1452년에 카라 코윤루의 자한샤가 이스파한을 정복한 사건에 관한 기록에서, 이스파한에 3,000투만의 배당금을 부과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3,000투만의 배당금을 위해 한 달 만에 약 10,000투만의 세금을 이스파한 주민들로부터 획득하였으며, 미스칼당 100디나르-이라키에 해당하였던 금액을 50디나르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힌츠는 이 기록을 이용하여 100디나르-이라키와 1금-디나르를 같은 가격으로 두고 디나르-이라키의 가격을 계산하였으나, 디나르-케베키를 8g으로 설정하는 착오가 있었다. 더욱이 위의 기록은 실제로 1금-디나르가 100디나르-이라키의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한샤 군대의 수탈을 드러내는 문학적 서사로 볼 수도 있다(Tihrāni, 1964: 330). 어쨌든 프라그너는 디나르-이라키와 디나르 타브리지는 카라 코윤루 및 아크 코윤루의 법정화폐였으며, 사파비조 시기에는 두 화폐가 일종의 계산화폐처럼 실존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둘은 같은 크기를 지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티무르조에서 이 두 디나르가 실존 화폐였으며, 무게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성 전후에 등장한다. 전술한 샤이바니 칸의 화폐 개혁이 있는 직후, 누케르들이 받은 양의 가격에 대해 언급할 때, “각각의 양은 칸의 탕가로 20탕가이며 이는 600 디나르-타브리지이다.”라는 기록이 있다(Khwāndamir, 1955-1956: 383). 힌츠의 등식에 따르면 탕가 : 디나르-타브리지의 비가는 15세기 중반에는 1 : 18이었는데, 16세기 초에는 1 : 30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칸의 탕가’는 샤이바니 칸이 주조한 탕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술하였듯이 그는 티무르조의 옛 탕가를 5디나르로 삼은 대신, 새롭게 주조하여 칸 본인의 이름을 새긴 탕가는 6디나르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20탕가는 곧 120디나르-케베키가 되며, 디나르-케베키 : 디나르-타브리지는 1 : 5의 비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디나르-타브리지의 환율은 시대에 따라 사료마다 각기 다른데, 그 변천사나 변화 시점에 대한 단서는 아직까지 사료 속에서 찾을 수 없으며, 이것의 재료가 구리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디나르 타브리지는 사료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지만, 등장 범위의 문제도 있다. 전술한 기사에서 샤이바니의 화폐 개혁이 진행되었던 곳은 티무르조의 옛 수도인 헤라트였는데, 이곳에서 ‘디나르-타브리지’가 거론된 것이다. 헤라트 자체가 별도의 지방 디나르를 가지고 있는데다, 정복자인 샤이바니 칸은 킵차크한국 중에서도 좌익에 속했던 오르다의 후손이었고, 주로 카프카스 산맥보다는 킵차크 초원-호라즘을 통해 남하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역은 디나르-타브리지의 사용권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전술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전기들의 빛』은 저자 혼데미르가 무굴제국 바부르의 초대를 받아 인도로 이주하기 전에 작성되었는데, 그가 이 사료를 저술하고 있을 때에는 헤라트가 사파비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파비조의 수도는 타브리즈였으므로 그가 디나르-타브리지를 이용한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디나르-바그다디라는 화폐도 티무르조의 사료에서 한 차례 등장하는데, 단순히 물가를 제시하는 단위로 쓰여 그 비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sup>39</sup> 다

<sup>39</sup>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거대한 기근이 발생하여, 타브리즈의 추로 1만(Mann)의 빵을 10디나르-바그다디로도 얻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1만(Mann)이 타브리즈의 추(Mann-i Shari)로는 833g이므로, 1kg가 채 되지 않은 빵의 가격이 10디나르-바그다디, 약 1.6탕가가 되며, 이는 약 10g 정도가 된다. 즉 1kg짜리 빵의 가격이 10g의 은의 가격과 맞먹는다는 의미다(Samarqandi,

만 전술한 힌츠의 등식에 따르면 이는 디나르-이라키 가치의 2배다. 또한 디나르-시라지라는 표현도 사료에 한 차례 등장하는데, 힌츠가 발견한 재정문서 중에 “1숨(Sum)은 47미스칼로, (9,400미스칼) 14디나르-호레즈미 혹은 75디나르-시라지이다.”라는 문구에서 등장한다. 힌츠는 200g의 무게를 지닌 킵차크한국의 은괴 ‘1숨이 곧 75디나르-시라지’라 해석하여, 1디나르-시라지는 2.67g의 순은이며, 이것은 8g의 디나르-케베키의 1/3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나르-바그다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디나르-케베키의 가치는 차가타이한국 시기와는 달랐고, 그가 도출해 낸 2.67g은 사실 샤루흐 시기의 디나르-케베키 무게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디나르-시라지는 디나르-이라키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된다. 한편 상기의 기사에는 ‘디나르-호레즈미’도 등장하는데, 힌츠의 계산에 따르면 그 무게는 10g 이상이다.

1450년대 이후로 이란 중·서부, 즉 이라크와 타브리즈를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이 전술한 바와 같이 카라 코윤루에 의해 병합되었다. 그리하여 15세기 중반 이후 이 지역의 구리 디나르에 관한 기록은 티무르조의 사서에서 거의 사라진다. 전술한 디나르-바그다디, 디나르-타브리지, 디나르-시라지의 경우 그 기록이 15세기 중반 이후의 것이라면 티무르조의 영향권 바깥의 사례가 되며, 카라코윤루 및 아크코윤루와 연결지어야 한다. 대신 디나르-헤라티나 디나르-메르비 등 후라산과 그 이동(以東) 지방의 디나르는 여전히 티무르조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우선, 디나르-메르비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마울라나 샤희 왓 딘의 기념물 중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말릭 바자르 가운데에 지어져 있었으며, 또한 피루즈 아바드 바자르에 계획 중이었던 카라반사라이가 있었다. 믿을 만한 자로부터 듣기를, 어느 날 전술한 목욕탕이 완성되었을 때 마울라나가 그곳으로 갔고, 함께 있었던 가신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욕탕에 얼마만큼을 소비하였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8디나르-메르비(Hasht Dīnār-i Mervī)이다.” 그 자는 매우 놀라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물었다. 마울라나가 말하기를 “나의 굴람들이 이 목욕탕의 건물을 지었고, 다른 기술자 굴람들이 그 물자들을 정돈하였다. 그리하여 굴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 나는 일이 없었다. 어제 그 건물의 대문의

사슬을 달고자 8디나르를 주었다.”(Khwāndamir, 1955-1956: 16)

이는 샤루흐 시대의 유명한 종교지도자였던 마을라나 샤합 앓 딘이라는 인물이 당대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화로, 이슬람력 820년경(1417)에 디나르-메르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환율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없다.

한편 디나르-헤라티는 II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주로 티무르조 말기의 기록이 많은데, 항상 디나르-케베키와의 비가가 1 : 6이었으며, 탕가와의 비가는 티무르조 말에 1 : 18, 다시 티무르조가 멸망할 무렵 1 : 36이었다. 한편 전술한 중국 사신 진성의 기록은 1414년 헤라트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 등장한 ‘폴루스(蒲立)’는 디나르-헤라티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디나르-헤라티는 미리의 1/6 혹은 1/9이라고 한다. 이는 탕가의 1/24, 혹은 1/36에 해당하는데, 다른 곳과는 달리 디나르-케베키가 아닌 미리와 1/6 비율을 지닌 것이 눈에 띈다. 다만 티무르조 후기가 되면 디나르 헤라티 역시 디나르-케베키와 1/6의 비율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진성의 기록을 통해 디나르-헤라티 역시 동전, 즉 구리화폐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마르칸트 구리화폐에 관한 단서는 샤이바니 칸 마드라사의 와크프나마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이 와크프나마에는 “한편, 이 계약문서에서 언급하였던 디나르는 “계산 디나르(Dīnār-i rā’ī)”로, 6개의 폴루스가 1디나르이다. 만일 시간이 흘러 폴루스가 변화하게 되어, 저렴해지거나 비싸지게 되고, 혹은 가치가 낮아진다면, 통용되는 20디나르-폴루스를 1미스칼의 순은으로 계산하여…”라는 문구가 있다(Мукминова, 1966: 222-223). 뒷부분은 가상의 상황이지만 앞부분은 당대의 실제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도 계산 디나르인 디나르-케베키가 6개의 디나르-폴루스와 동일한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이 기록 속의 폴루스가 어느 지역의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샤이바니 칸의 마드라사가 사마르칸트에 있고, 바로 앞 기사에 ‘사마르칸트 기준으로 1대-만(Mann-i Buzurg)이 4,000미스칼’이라는 기록이 있어 본문에 언급된 폴루스는 사마르칸트에서 통용되는 폴루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sup>40</sup> 한편 이 기록에서 1 대-만은 4,000미스칼이라 되어 있는데, 앞서 1표준-만이 250미스칼인 것에

이처럼 각 지역의 지방 디나르에 관해 고려해 보았을 때, 티무르조 내에 비교적 많은 기록을 지닌 지방명 디나르들이 디나르-케베키와 1 : 6의 비가를 지닌 구리 화폐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디나르-헤라티나 디나르-이라키, 그리고 디나르-사마르칸디가 모두 디나르-케베키와 1 : 6의 비가를 지니고 있으며, 폴루스 혹은 동전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sup>41</sup> 앞서 우마리의 기록이나 샤이바니 칸 마드라사의 워크프나마에 언급하였듯이, ‘계산 디나르(Dinār-i rā’ī)’인 디나르-케베키는 원칙상 디르함과 1 : 6의 비가를 가져야 하므로, 디나르-케베키를 계산 디나르로 규정하였던 티무르조에서는 은화인 계산 디나르와 그 아래 단위의 화폐인 구리화와의 비가를 1 : 6으로 내내 고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티무르조의 주요 지방 디나르는 은화-디르함이 아닌 구리화인데, 이는 계산 디나르인 디나르 케베키의 무게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티무르조의 디나르-케베키는 그전 시대의 것(약 8g)에 비해 무게가 반 이상 줄어든 상태(약 3.2g)에서 시작하는데, 후반으로 가면 그 무게가 0.8g까지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보다 1/6배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하위 화폐로는 은화보다는 은을 조금 포함한, 은으로 도금한 폴루스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

다비도비치의 실물 화폐 연구에 따르면 티무르조 초기에 트란스옥시아나의 구리 디나르는 대체로 1미스칼과 2누쿠드(≈5.2g)/혹은 1미스칼과 1누쿠드(5.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Davidovich 외, 1994: 415). 이 구리 디나르가 디나르-케베키와 1 : 6의 비가를 지닌 지방 디나르라면, 디나르 케베키의 무게가 약 3.2g이었을 때 3.2g의 은과 31.2g의 구리가 같은 가치를 지닌 셈이다. 다만 이 비가를 티무르 중·후기나,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티무르조의 서부인 이란의 민간 구리화(Civic Copper Coin)의 경우, 그 무게가 2~6g

비하면 둘은 16배 차이가 난다. 야즈디의 『승전기』에 따르면 16Man-i Shari’ = 1 Sang-i Kalān 이므로 1대-만은 16 표준-만에 해당하는 단위다(Yazdi, 2008-9: 642).

<sup>41</sup> 디나르-바그다디나 디나르-타브리지 등 1 : 6의 비율을 갖지 않았던 디나르의 경우 티무르조의 바깥에 존재하여 별도의 전통을 갖게 된 화폐라 볼 수 있다. 디나르-바그다디의 경우 예부터 바그다드에는 ‘계산 디나르’와는 별도로 1 : 12 비율의 대형 은화 디나르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디나르-타브리지의 경우 15세기 초반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중반부터는 공식적으로 티무르조의 강역이 아닌 카라코윤루, 아코코윤루의 강역이 되기 때문에, 코윤루의 제도에 따라 별도의 화폐 무게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이에 산재해 있는데 이를 ‘Adilya’라는 단 하나의 단위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신·구권의 10원짜리 동전이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을 상기해 볼 때, 티무르조 서부에서는 구리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및 은화와와의 교환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 V. 맺음말

티무르는 이슬람력 803년(1399)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였을 때, 그곳에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가 큰 해프닝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가 존재하므로 상술하지 않을 것이나,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다마스쿠스 현지 은화의 순도가 낮고 가벼워 가치가 매우 낮고, 반면에 티무르조의 은화인 탕가는 무게와 순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즉, 티무르는 배상금을 탕가 단위로 요구하였으나, 다마스쿠스인들은 자신들의 디르함으로 같은 액수를 준비하였던 것이다. 야즈디가 기록하였던, 현지의 화폐를 녹여 탕가로 재주조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Heidemann, 1999).

본래 전근대 이슬람권의 금·은·동화는 각각 ‘디나르, 디르함, 폴루스’라는 같은 이름을 갖지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무게와 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서로간의 비가도 달랐다. 게다가 일한국 이후로는 디나르, 디르함 사이의 무게 비율이나, 금은비가와 같이 고정되어 있던 기본 원리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칸은 화폐 개혁을 통해 무게 비율의 새로운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타브리즈의 규범에 따라 이 토착 디르함의 6배가 되는 대형 은화 디나르와, 그 디나르의 4배 값어치를 갖는 1미스칼짜리 금화라는 체계적인 화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을 준용하였던 티무르조는 대형 은화를 두 종류로 분리하여 하나는 계산만을 위한, 다른 하나는 지불만을 위한 은화로 만들었고 두 은화 사이의 환율도 설정하였다. 다만 일한국 때와는 달리 티무르조에서는 대형은화 자체가 소액권보다 널리 유통되었고, 본래 대형은화와 1 : 6의 비가를 이루었던 디르함<sup>42</sup>의 자리를 구리화(폴루스)가 대체하여, 민간

<sup>42</sup> 이 디르함은 본래 몽골제국의 서정과 더불어 이슬람권에서 현지에서의 징세 등을 위해 주조된

단위에서는 구리화가 사료에 등장할 만큼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간에 구리화를 보급하고 민간에서 사용되던 은화를 보다 큰 시장 단위에서만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보다 적은 양의 은으로 화폐 시장을 운용하고 은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 은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었으므로 일한국에서 발생하였던 은화의 무게 감소 현상은 티무르조에서도 계속되어, 15세기 상반기에만 탕가의 무게는 4차례 감소하였다. 또한 15세기 말~16세기 초에는 탕가의 무게가 고정되는 대신 또 다른 대형은화인 디나르-케베키와의 비가가 두 차례 변화하여 탕가 : 디나르-케베키의 비가는 1 : 2에서 1 : 6이 되었는데, 민간 구리화와 일정한 1 : 6의 비가를 유지하였던 화폐는 디나르-케베키였기 때문에, 결국 실제 통용되는 탕가의 가치는 구리화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1 : 12에서 1 : 36까지 치솟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변화 역시 은화 가치의 폭등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렇듯 티무르조의 화폐 제도는 일한국과 차가타이한국의 전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에 대형 은화의 종류가 두 가지인 점과, 구리화가 디르함의 위치를 대체한 것과 같은 새로운 변화도 존재한다. 이 글은 사료와 현존 화폐 유물 및 기존 연구 등을 조합하여 티무르조 130년간의 화폐 제도의 변천사를 현상 중심으로 재검토하였는데, 앞으로 그 기저에 자리한 경제사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폭넓은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1년 2월 16일 | 심사일: 2021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 참고문헌

- 陳誠. 周連寬 校注. 2000. 『西域番國志』, 中華書局.  
前田直典. 1973. 『元朝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은-구리 합금의 디르함에서 유래되었다(Kolbas, 2005: 31-75).

- Album, Stephen. 1997. "The Coinage of Nūr-āward, Atabeg of Lur Buzurg, 751-757 H./A.D. 1350-56." *Museum Notes* (American Numismatic Society) 22, 213-239.
- . 2011. *Checklist of Islamic Coins*, 3rd Edition. Stephen Album Rare Coins Inc.
- Album, Stephen, Michael L. Bates, and Willem Floor. 1992. "COINS AND COINAGE." *Encyclopaedia Iranica* 6(1), 14-41.
- Atwell, William. 1998. "Ming China and the Emerging World Economy, c. 1470 - 1650."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8,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āfqi, Mustaufi, Muḥammad Mufid. 1385Sh./2006-7. *Jāmi'-yi Mufīdī*. Asāṭir.
- Bates, Michael L. 1978. "Islamic Numismatics." *MESA Bull.* 12(2), 1-16.
- Blair, Sheila S. 1983. "The Coins of the Later Ilkhanids: A Typological Analysi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26(3), 295-317.
- Clavijo, G. Le. Strange, tr. 1928. *Embassy to Tamerlane*. London: Routledge & Sons.
- Давидович, Е. А. 1979. Денежное хозяйство Средней Азии в XIII веке. МОСКВА: НАУКА.
- Давидович Е. А. 1983. История денежного обращен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й Средней Азии, МОСКВА: НАУКА.
- Davidovich E. A. and A. H. Dani. 1994. "Coinage and the Monetary System." In M. S. Asimov and C. E. Bosworth, e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 The Age of Achievement: A.D. 750 to the end of the Fifteenth Century* 4, Part 1, The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 setting, Unesco.
- Davidovich, E. A., E. V. Rtveldze, and S. Moosvi. 2003. "Monetary Systems and Prices." In Chahryar Adle and Irfan Habib, e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 Development in Contrast: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V. Unesco.
- Fedorov, Michael. 2010. "The "Bukhar Khudat" Type Drachms and "Black Dirhems" in Money Circulation of Mediaeval Central Asia." *Central Asiatic Journal* 54(1), 27-52.
- Fragner, Bert. 1993. "Social and Internal Economic Affairs." In Peter Jackson, ed. *Cambridge History of Iran 6: The Timurid and Safavid Perio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demann, Stefan. 1999. "Timur's Campmint during the Siege of Damascus in 803/1401." *Studia Iranica Cabier* 21. Paris: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Etudes Iraniennes, 1999.
- Hinz, Walther. 1950. "Ein Orientalisches Handelsunternehmen im 15. Jahrhundert." *Die Welt des Orients* 1(4), 313-340.
- \_\_\_\_\_. 1957. "Reviewed Work: Deux sayyids de bam au XVe siècle. Contribution à l'histoire de l'Iran timouride by Jean Aubin." *Oriens* 10(2), 368-370.
- Hinz, Walther. M. Ismail Marcinkow-ski, tr. 2003. *Measures and the Weights in the Islamic World*. Kuala Lumpur: International Institute of Islamic Thought and Civilisation,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 Isfijārī, Mu'in al-Dīn Muḥammad Jamchī. 1339Sh./1960-1. *Ruzāt al-Janāt-fi Ūṣāf madīna-yi barāt*, Tehran: Dānishghāh-i Tihṙān.
- Ja'fari, Ja'far b. Muhammad b. Hasan. 1384Sh./2005-6. *Tarikh-i Yazd*, Tehran: Sherkat-i Enteshārāt-i E'lmī wa Farhanghī.
- Katīb, Aḥmad b. Ḥusayn b. 'Alī. 1357Sh./1978-9. *Tārīkh-i Jadīd-i Yazd*, Tehran: Farhang-i irānZamīn.
- Khwandamir, Ghiyas al-Din. Thackston, W. M. tr. and ed. 1994. *Habibu's-siyar, Tome Three. The Reign of the Mongol and the Turk*. Cambridge: Dep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 Kolbas, Judith. 2005. *The Mongols in Iran: Chingiz Khan to Uljaytu 1220-1309*, London: Routledge.
- Cordington, O. 1904. *A Manual of Musalman Numismatics*.
- Manz, Beatrice Forbes. 2007.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ashī, Zahr al-dīn b. Naṣīr al-dīn. 1364Sh./1385-6. *Tārīkh-i Gilān wa Daylamistān*. Tehṙān: Iṭilā'āt.
- Mukminova, R. G. 1994. "The Timurid States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In M. S. Asimov and C. E. Bosworth, e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The Age of Achievement: A.D. 750 to the End of the Fifteenth Century* 4, Part 1. The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 Setting, Unesco.
- Paul, Jurgen. 1991. "Forming a Faction: The Himayat System of Khwaja Ahrar."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3(4), 533-548.

- al-Qalqashandī. 1914. *Ṣubḥ al-Aʿsha* 4. Cairo.
- Rashīd al-Dīn Fazl-allah, Alizade, ed. 1957. *Jāmiʾ al-tawārīkh*. Baku.
- Rebstock, Ulrich. 2008. “Weights and Measures in Islam.” In Helaine Selin, ed. *Encyclopaedia of the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Non Western Cultures*. Berlin: Springer.
- Rossabi, Morris. 1998. “The Ming and Inner Asia.”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8, part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arqandī, Kamāl al-Dīn Abdālrazāq. Nawāī, ‘Abdul Ḥusayn, ed. 1375Sh./1996-7. *Maṭlaʾ Saʿdayn wa Majmaʾ Bahrayn*. Tehrān: Muʿasasa-yi Muṭāliʾāt wa Taḥqīqāt-i Farhangī.
- Smith, John Masson Jr. 1969. “The Silver Currency of Mongol Iran.”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12-1, 16-41.
- Subtelny, Maria. 2007. *Timurid in transition: Turko-Persian Politics and Acculturation in Medieval Iran*. Leiden: Brill.
- Ṭīhrānī, Abū Bakr Iṣfahānī. 1964. *Kitāb-i Diyārbakriyya*. Ankara: Turk Tarih kurumu Basimevi.
- Tom, Sinclair. 2012. “Some Conclusions on the Use of Coins on the Ayas-Tabriz Route (Late 13th and First Half of 14th Century A.D.).” At the Crossroads of Empires: 14th-15th Century Eastern Anatoli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in Istanbul, 4th-6th May 2007. Istanbul: Institut Français d’Études Anatoliennes-Georges Dumézil.
- Treadwell, Luke. 2007. “The Monetary History of the Bukharkhuda Dirham (“black dirham”) in Samanid Transoxania (204–395/819–1005).” *Oriental Numismatic Society Journal* 193.
- Yazdī. Sharaf al-Dīn ‘Alī. Sayyīd Sʿāīd Mīr Muḥammad Ṣādiq, ed. 1387 Sh./2008-9. *Zafar nāma*. Tehran: Markaz-i Asnād Majlis.
- Yusuf, Abu Bakar Bin Mohd et al. 2002. “Implementation of the Gold Dinar: Is It the End of Speculative Measures?” *Journal of Economic Cooperation* 23(3), 71-84.

## Abstract

## Reconsidering Timurid Currency System

Juye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Timurid currency system. Traditionally, the Islamic world has three different coins: Dinar made of gold, Dirham made of silver, and Fulus made of copper. These coins have had their own standard of weight, purity, and ratio from the early Umayyad Caliphate. However, since the 13th century, several kinds of denominations of coins, which formed an integral number of existing Dinars or Dirhams, appeared from all around the Islamic world. These denominations were not regal ones, which brought on confusion. Therefore, Il-khan Ghazan Khan invented big silver Dinars that became a simple integer ratio to small silver Dirhams. The Timurid dynasty inherited Ghazan Khan's reform and invented new big silver coins named Tanka, which was similar to the appearance of coins of the Delhi sultanate and formed integral numbers of Samarqand local Dirham (Miri). Silver Tanka was distributed throughout the Timurid dynasty, but copper coins without a specific size was distributed in particular areas. The Timurid dynasty had several currency zones for the copper coins like Samarqand (Mawara an-nahr), Iraq, and Herat (Khurasan), and the copper coins were similar size but different appearance.

**Keywords** | Dinar, Dirham, Fulus, Tanka, Currency System